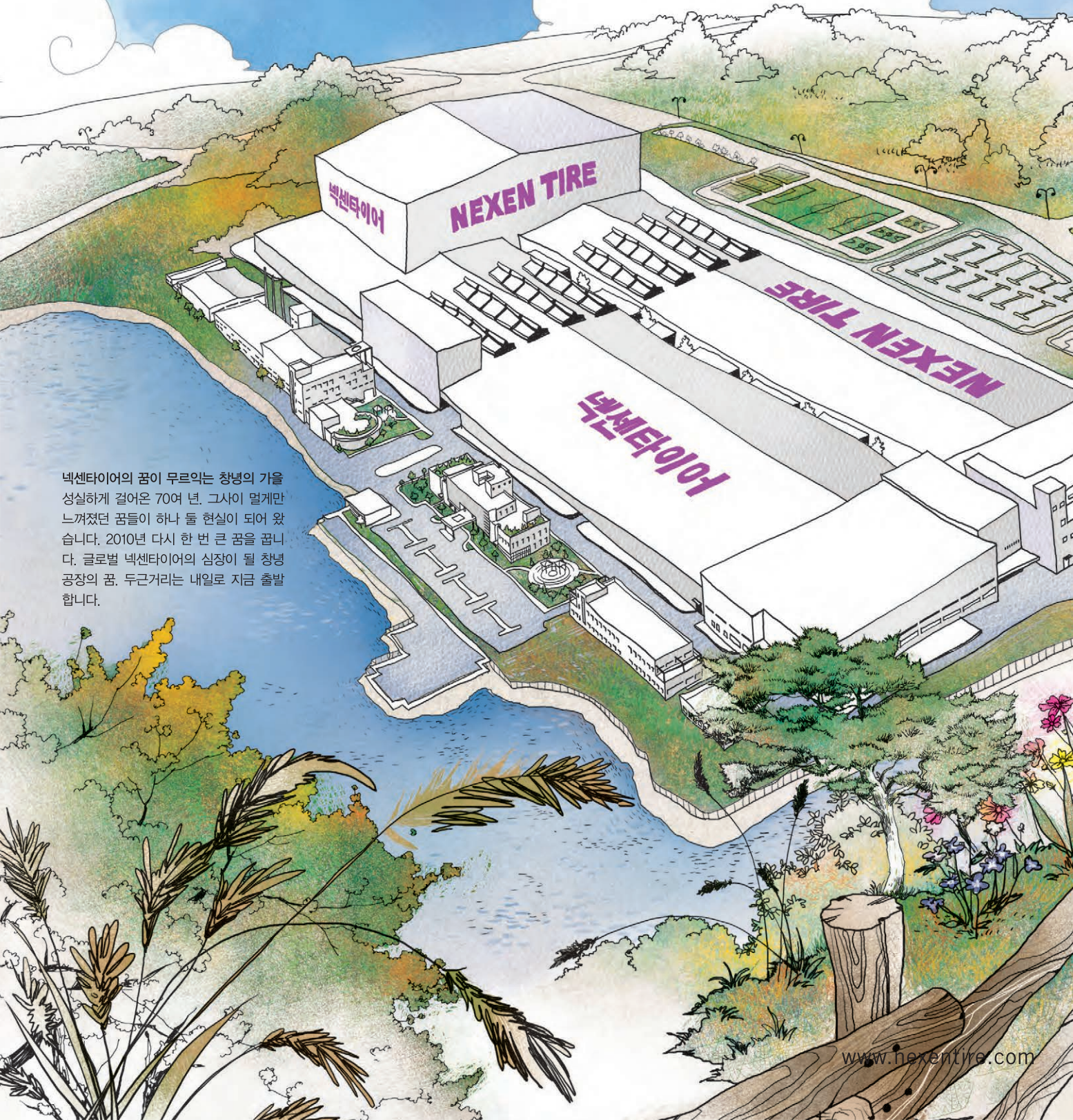


헬로우 넥센

넥센타이어의 꿈이 무르익는 창녕의 가을
성실하게 걸어온 70여 년. 그사이 멀게만
느껴졌던 꿈들이 하나 둘 현실이 되어 왔
습니다. 2010년 다시 한 번 큰 꿈을 꿈니
다. 글로벌 넥센타이어의 심장이 될 창녕
공장의 꿈. 두근거리는 내일로 지금 출발
합니다.





CONTENTS

04 월(日)

06 Event

2010 노사화합의 축제

Driving

12 클로즈업 ①

2010 넥센타이어 RV 챔피언십

16 클로즈업 ②

Green Factory 창녕공장

20 핫이슈 ①

확 바뀐 타이아테크 리뉴얼

22 핫이슈 ②

당신이 바라는 모든 것, OP672

24 핫이슈 ③

넥센타이어 홈페이지 새단장

26 동그라미 Q&A

친한 친구, 타이어 & 휠

28 넥센프렌즈 ①

타이어뱅크 서울 시흥대로점

Knowing

SPECIAL THEME, 달리기

29 테마를 열다

달리기를 말할 때 하고 싶은 이야기

30 테마를 알다

달린다는 것, 좀 멋진 일

34 테마를 논하다

거침없는 오지마라토너 유지성

38 테마를 즐기다

그까이꺼 그냥 뛰면 되는 거 아냐?

Feeling

42 어느 멋진 날

하루 낮, 토막잠 같은 일탈

46 별별 콘테스트

만추(晩秋)백일장

50 패밀리가 떴다

은서야, 두부 만들러 가자

52 똑똑, 분임조 습격사건

번개분임조의 살림장만 퀴즈대회

56 참, 고맙습니다

목포에 슈퍼 히어로가 떴다!

58 넥센프렌즈 ②

타이어테크 군산 수송점

Jumping

60 맛있는 휴식, 여행

가을의 첫 정거장, 양양

66 지구를 위한 작은 배려

전기 플러그 뽑기

68 재테크의 기술

합법적으로 세금 덜 내는 법

70 가장 귀한 건강

몸이 보내는 SOS

72 우리아이 마음 읽기

나는 뽕서를 읽습니다

74 나눔 그리고 어울림

25주년 장기근속자 호주여행기

75 넥센프렌즈 ③

타이어테크 천안점

76 넥센뉴스

행동하는 전문가를 위하여

정련파트 문형섭 사우

눈이 밝은 사람에게는 보인다. 현장의 작업자들이 똑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것 같아도 매번 조금씩 변수를 달리해 더 나은 결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정련파트 문형섭 사우는 눈은 크지 않지만 꼼꼼히 살필 줄 알고, 귀 기울여 들을 줄도 안다. 그것이 그가 올해에만 43건의 제안으로 13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낸 비결이다.

“제안활동의 답은 다 나와 있습니다. 현장 작업자들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무엇이 불편한지 알 수 있습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안에 아이디어도 모두 들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일이라곤 그것을 행동으로 바꾸는 것뿐이었습니다.”

타이어 제조의 기본단계로 재료를 배합해 각 공정에 공급하는 정련파트, UHP(고성능타이어 생산에 초점이 맞춰져)면서 정련파트에서 풀어야 할 숙제는 점점 많아지고 있다. 최근 문형섭 사우가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도 새로운 보강제인 실리카의 작업성 개선이다.

“앞으로 고성능타이어의 기술은 점차 복잡해질 것입니다. 정련파트 역시 미식나 기계 쪽에서 새로운 기술이 바뀔 때마다 재빨리 적응하고 문제를 개선해 나가야 하죠.”

믹서 관련 전문사이트나 서적을 자주 찾아본다는 문형섭 사우. 그가 개선을 해낼 때마다 어깨를 두드려주는 동료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든든한 선배들이 그가 꾸준히 나아갈 수 있는 에너지원이다. 행동하는 전문가가 되고 싶다는 문 사우의 꿈이 꼭 이루어지길 바란다.

100-1≠99, 100-1=0

디테일(Detail)이란 어떤 일이나 물건의 작고 사소한 부분을 의미한다. 큰 터미에서 떨어져 나온 한 톨의 모래알이나 숫자 100에 1의 존재가 디테일이라 할 수 있다. 있어도, 없어도 크게 존재를 위협하지 않은 Small Part. 하지만 때로는 100에서 1을 빼면 99가 아닌 0이 되기도 한다. 사소해 보이는 디테일이 시스템이나 제품의 완성도를 좌우하는 열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때로는 지엽적인 부분에 얽매는 것을 우려하기도 하지만 치밀한 분석과 행동 없이는 누군가에게 깊은 감동을 주기는 어렵다. <디테일의 힘>의 저자인 왕중추는 말단 사원에서 시작해 중국 대기업의 임원으로, 기업들의 컨설턴트로 일하며 '이 세상에 작은 일은 없다'는 디테일의 힘에 눈을 떴다.



중국의 저장성에서 냉동새우를 판매하는 한 회사가 유럽의 수입업체로부터 이미 공급한 제품에 대한 수입을 거부당했다. 유럽의 수입업체는 수입 거부는 물론 손해배상까지 청구했다. 유럽 현지의 검역소에서 이 회사가 수출한 1,000톤의 냉동새우를 검사한 결과, 항생물질의 일종인 클로람페니콜 0.2그램이 발견되었다며 통관불허 결정을 내린 탓이었다. 검역에서 발견된 클로람페니콜의 함량은 총 수출량의 50억분의 1에 불과했다. 보통 새우깍질을 벗기는 일은 사람이 직접 하게 되는데, 일부 직원들이 손에 습진이 생겨 클로람페니콜이 함유된 소독약을 바르고 일을 하다가 새우에 그 성분이 묻게 된 것이다. (중략)



필자는 개인적으로 50억분의 1이라는 수치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뼈아프게 일러주고 있다고 본다. 그것은 바로 잘못이든 착오든 일단 생기고 나면 그것이 비록 작고 사소한 것일지라도 결과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이다. ● 42~43쪽

디테일한 부분 때문에 성공의 기회를 거머쥐는 일은 얼핏 보면 우연인 것 같지만 실은 필연적인 것이다. 디테일한 부분은 어딘가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물보라가 바다의 아름다움을 표현 해주지만, 바다를 떠나서는 결코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이다. “작은 일이 큰 일을 이루게 하고, 디테일이 완벽을 가능케 한다”(데이비스 팩커드, 휴렛팩커드 창업자) ● 77쪽

나는 앞으로의 경쟁은 디테일의 경쟁이 될 것이라고 과감하게 단언한다. 디테일을 중시하고 디테일에서 우위를 점하는 기업만이 오래 살아남을 수 있다.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어떤 디테일한 점이 개선될 경우 소비자에게는 1%의 편리함을 증대시켜줄 뿐이지만, 시장점유율에서는 이 1%의 편리함이 몇 배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원인은 간단하다. 소비자들이 두 가지 상품을 놓고 비교할 때, 동일한 성능이 모두 상쇄되고 나면 1%의 디테일한 부분이 부각되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디테일에서의 1%의 우세를 근거로 제품을 선택하기 때문에 1%가 100%를 좌우하는 셈이 된다. ● 157쪽



뜨거운 열기

1

아름다운 우정 '열정 2011' 2010 넥센타이어 노사화합의 축제

학창시절의 가을운동회는 누구 하나 빠질 수 없었던 모두의 축제였다. 반별로 웅기충기 모여앉아 목이 터져라 응원하고, 출전한 선수는 젖 먹던 힘까지 짜내어 승리를 거머쥐던 그 가을운동회. 하늘이 높고 푸른 가을에는 역시 스포츠가 제격이다. 어린 시절 가을운동회의 추억을 되새기며 넥센타이어에서도 왁자지껄 노사화합의 축제가 벌어졌다. 후끈한 열기와 아름다운 우정의 한마당이 궁금하다면 모두 함께 이곳 출발선에 서자. 하나 둘 셋, 탕!



2



3



누가 누가 잘하나, 한번 볼까요?

2010년 10월 17일, 양산대학 운동장에서 시작된 넥센타이어 노사화합의 축제. 이번 노사화합의 축제는 '열정 2011'이라는 슬로건 아래 사우와 가족 모두 하나되어 회사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두텁게 하는 자리였다.

총 8개 팀으로 나누어 사전진행경기 및 당일진행경기를 포함, 응원과 질서 등에 점수를 매겨 승리 팀을 선발하는 이번 축제의 열기는 매우 뜨거웠다. 특히 축구, 족구, 배구, 볼링, 배드민턴, 탁구, 온라인게임 총 7개 종목으로 진행된 사전진행경기에서는 전국대회에서도 명성을 떨치는 넥센인의 실력답게 치열한 승부가 펼쳐졌다.

노사화합의 축제 당일, 노사 화합의 깃발 아래 이성경 노조위원장의 축제 개막 선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승부가 시작되었다.

첫 번째 경기는 커플피구. 12쌍의 남녀 커플로 팀을 구성해 피구를 하는 경기로 여자팀원이 공에 맞거나 혹은 남녀가 떨어지면 탈락하게 된다. 남자팀원은 공에 맞아도 탈락하지 않으므로 여자팀원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하며 이는 넥센타이어 가족들의 매너를 살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했다. 혼자 움직일 때보다 불편하고 느리지만 몸을 날려 팀원을 지키는 넥센의 매너남들이 돋보였다.

1 영차영차. 젖먹던 힘까지 모두 뽑아냅니다

2 운동 전 몸풀기는 기본이죠.

3 달리라, 균형 잡으라, 바쁘다 바빠!

4 화이팅! 화이팅! 뜨거운 응원의 열기

두 번째 경기는 단체줄넘기다. 5분의 연습시간이 있었지만 20명의 호흡을 맞추기는 쉽지 않았다. 본 경기에서도 힘든 것은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언제나 군계일학은 있게 마련. 6팀이 16개라는 기록을 세우며 1승을 가져갔다.

이어지는 세 번째 경기는 카드 뒤집기. 앞뒤로 빨간색과 파란색이 칠해진 큼지막한 카드 50장이 코트 위에 뿌려지고 1분 동안 자기 팀의 색을 코트 위에 많이 뒤집어 놓는 팀이 승리하는 경기다. 매서운 눈썰미와 빠른 손놀림이 관건이었던 이번 경기에서는 2팀이 승리를 거두었다.

겨우 세 경기를 치렀을 뿐인데 오전이 모두 지나갔다. 승부도 중요하지만 금강산도 식후경이니 꿀맛 같은 점심시간을 맞이했다. 동시에 운동장에서는 노사 간부와 회사 임원이 참여한 노사화합 축구경기와 여성 넥센인들의 월드컵이 진행됐다.

나이도 성별도 체력도 잊은 두 경기는 프로 못지않은 열정과 격렬한 몸싸움으로 보는 이들의 손에 땀을 쥐게 했다. 노사화합 축구경기에서는 노사 간부팀이, 여자 월드컵에서는 B팀이 나란히 후반 1점 골로 승리했다.

우리는 천하무적 넥센타이어

넥센인들의 열기로 가을이 무색할 만큼 후끈 달아오른 양산대학 운동장. 오후에도 뜨거운 분위기는 계속 이어졌다. 첫 경기는 모두 한마음으로 움직여야하는 '협력 공 튀기기'. 여럿이 줄이 나누어 잡고 원반 가운데 있는 공을 떨어뜨리지 않게 튀기는 경기이므로 협동이 매우 중요했다. 어려

1 치열한 접전을 벌인 사전진행경기

2 축구왕 슛돌이도 울고 갈 현란한 드리블

3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하나, 둘, 셋, 점프!





노 사 화 합 결 의 문

우리는 新노사문화의 선두주자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노·사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세계 초일류 기업을 향한 의지를 다지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노사는 한마음으로 매출증대 및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하나, 노사는 고용안정과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한다.

하나, 노사는 하나이며, 상호존중을 통하여 공동 발전을 모색한다.

하나, 노사는 신바람 나는 직장문화 정착에 힘쓰고 환경 친화적인 기업으로 육성하여 밝고 건전한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동참한다.

- 2010년 10월 17일 넥센타이어 전 직원 일동





- 1 번쩍번쩍 의상만큼이나 화려했던 충실력
- 2 미친 A 마스크트들의 구수한 입담
- 3 2PM보다 멋진 일곱 남자들의 Heart Beat
- 4 초대가수 코요테와 즐거운 시간
- 5 가인만큼 섹시한 그의 복부
- 6 차가운 밤 공기에도 물소를 감행한 멋진 난타공연
- 7 장기자랑 우승팀 4팀 수고하셨습니다~!

울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매일 손발을 맞춰 온 협동심을 유감없이 증명하려는 듯 공만 튕겼다 하면 200개가 넘어가는 열전이 펼쳐졌다. 1위 팀은 무려 404개의 신기록을 수립했다.

이어지는 경기는 낯다리 밟기, 사우 자녀 두 명과 여성팀원 한 명이 반환점을 돌아오는 방식이다. 등 위를 달린 팀원은 축지법이 무색한 빠른 발놀림을 선보여 박수를 받았으나 남성팀원의 등엔 무수한 발자국이 영광의 상처로 남았다.

다음 경기는 줄다리기. 힘도 중요하지만 50명의 팀원이 한마음이 되어야만 승리할 수 있다. 영차영차. 팀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기운을 뚫었다. 있는 힘 없는 힘 모두 쥐어 찼 30초. 얼굴엔 땀이 줄줄 흐르고, 팔과 다리는 후들후들 거리지만 결코 줄을 놓치지 않는 인내와 끈기로 2팀이 승리를 거머쥐었다.

끝으로 400m 장애물경기와 1,000m 계주만이 남았다. 장애물경기에서는 좁은 터널과 그물, 그리고 앞구르기용 매트 등 3가지 장애물이 준비됐다. 선수들의 몸 개그가 모두의 얼굴에 웃음꽃을 피우게 했다.

축제의 꽃 1,000m 계주도 만만치 않은 인기종목. 마지막으로 역전을 노릴 수 있는 시간이기엔 각 팀에서 발 빠른 선수는 다 모였다. 날렵한 몸을 자랑하며 출발선에 선 선수들. 이성경 노조위원장과 이현봉 부회장의 출발 신호와 함께 스타트! 무더운 날씨에도 앞서거나 뒤서거나 달리기 실력을 뽐내는 선수들은 치열한 접전을 펼쳤다. 달리기 후, 최종 우승팀을 가리는 시간. 결국 승리는 540점의 2팀에게 돌아갔다.

경기는 끝났지만, 축제는 끝나지 않았다. 이번 노사화합의 축제를 위해 장장 3개월간 준비한 각 팀의 장기자랑 시간이 남았다. 특히 이번 장기자랑은 사우들 외에 가족들까지 참가해 더욱 뜻깊었으며 춤, 뮤지컬, 개그, 난타 등 어느 하나 빠질 것 없이 풍성한 볼거리를 자랑했다. 가을밤이 깊어가는 줄 모르고 이어진 시간, 미친 A라는 팀명으로 넥센타이어 가족들의 배꼽을 잡게 한 2팀과 화려한 물소까지 가미해 난타를 선보인 4팀이 최종 승부를 겨루고 아슬아슬한 점수 차로 4팀이 최우수상을 가져가며 2010 노사화합의 축제는 막을 내렸다.

어느 때보다도 화려하고 뜨거웠던 2010 넥센타이어 노사화합의 축제. 웃고 즐기라 짧게만 느껴졌던 시간이지만 넥센타이어 가족들의 가슴속에는 그 뜨겁고 아름다운 여운이 오래도록 남아 오래도록 유쾌한 에너지를 전해줄 빈다. ㉞

스포츠도 역시 넥센타이어

스포츠 하면 전국에서 내로라하는 실력을 자랑하는 넥센타이어. 이번 노사화합의 축제 당일에도 그 실력은 어김없이 발휘되었다. 10월 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 진행된 육군참모총장배 전국 축구대회에서는 넥센타이어 축구팀이 3위라는 좋은 성적을 거둬 축제 중 경사를 알려왔으며, 17일 당일 진행된 한국노총배 경남지부 체육대회에서는 축구, 볼링, 족구 팀 등 3개 팀이 우승을 차지하며 대회 우승을 석권했다는 겹경사를 맞았다. 특히 정식 선수가 아닌 동호회 활동을 하는 일반인들이 참가해 거둔 좋은 성적이기에 더욱 뜻깊은 성과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사우들의 뛰어난 실력과 건강한 체력이 있기에 넥센타이어 역시 건강한 기업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닐까.



안산을 달구는 2010 질주본능, Start!

2010 넥센타이어 RV 챔피언십

지난 9월 12일, 경기도 안산 스피드웨이에서 '2010 넥센타이어 RV 챔피언십'이 개막전으로 그 시작을 알렸다. 국내 유일의 RV 레이싱 대회로 넥센타이어와 함께 벌써 다섯 해째 열기를 이어가고 있는 '2010 넥센타이어 RV 챔피언십'. 그 뜨겁고도 순수한 열정의 현장을 소개한다.



더 가깝게, 더 치열하게

'2010 넥센타이어 RV 챔피언십'은 국내에서 유일한 RV레이싱 대회로 지난 4년간 꾸준히 인지도를 쌓으며 5회째를 맞이해 우리나라 대표 레이싱경기로 자리 잡았다. 특히 넥센타이어는 2005년 첫 회부터 메인스폰서로 대회를 후원하며 국내 레이싱 문화 활성화에 정성을 기울이고 있다.

많은 이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치러진 '2010 넥센타이어 RV 챔피언십'은 지난해보다 일정이 조금 늦춰졌지만 그 열기는 변함 없었다. RV 최고 클래스인 SGT 외 5개 클래스와 승용디젤 2개 클래스 등 총 7개의 클래스에서 멋진 레이스가 펼쳐졌다.

이번 '2010 넥센타이어 RV 챔피언십'은 모터스포츠가 한층 더 가깝게 대중에게 다가선 것으로도 뜻 깊다. 줄곧 강원도 태백에서 치러졌던 이전과 달리 수도권에서도 접근성이 좋은 경기도 안산 스피드웨이로 자리를 옮겨 경기가 펼쳐졌기 때문이다. 개막전에서 레이싱 애호가들은 물론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려는 다수의 일반 관람객들이 대회 현장을 찾아 활기를 불어 넣었다. 또한 가족 단위의 관람객들도 아이들과 함께 소풍을 나오듯 안산 스피드웨이를 찾아 레이싱의 세계를 맛보았다.



그 외에도 '포토존'을 설치하고 관람객들에게 레이싱 모델과 경주차 기념촬영, 직접 레이싱 카에 동석할 수 있는 택시타임 등 다채로운 행사가 더해져 관람객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했다.

'2010 넥센타이어 RV 챔피언십'은 회를 거듭하며 국내 최고 권위의 온로드 RV 레이싱으로 자리매김한 데 이어 국내 모터스포츠 문화를 크게 도약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육중한 RV가 서킷을 질주하는 모습은 박진감이 넘쳐 관람객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넥센타이어 마케팅커뮤니케이션팀 한윤석 팀장은 "5년차를 맞은 '2010 넥센타이어 RV 챔피언십'이 세계적 수준의 명품 레이싱대회로 자리 잡았다"며 "넥센타이어 브랜드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국내 레이싱 참여인구의 저변 확대에 기여하는 모터스포츠대회로 성장시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넥센타이어는 개막전과 같은 날 강원도 태백레이싱파크에서 열린 '2010 CJ헬로넷 슈퍼레이스 챔피언십'의 '넥센 N9000클래스' 대회에도 공식 스폰서로 나섰다. 넥센 N9000제품은 스트리트 레이서를 위한 스포츠카 전용타이어로서 빗길이나 다양한 도로여건에서 초고속 주행성능을 자랑해 역동적인 레이싱이 기대되고 있다. ⑩



■ RV란?

RV(Recreational Vehicle)란 레저용 차량을 뜻하는 용어로 카 렌스와 같은 미니밴, 무쏘와 같은 SUV, 아반떼 투어링과 같은 왜건(Wagon)이 포함된다. RV레이스는 일반 승용차에 비해 육중한 차체로 경주트랙을 질주하는 모습에서 훨씬 빠른 속도감과 박진감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모터스포츠 마니아들로부터 매력적인 경기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대회는 무쏘, 소렌토, 코란도, 스포티지, 렉스턴 등 다양한 RV 차량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출시 후 개조하지 않은 순정차량부터 무한 개조된 차량까지 다양한 차량이 참가해 갤러리들에게 많은 볼거리를 제공했다.



Interview 1

욕심내기보다는 즐기는 레이싱



● SGT 타임레이스 1위 팀 샤프카 이동호 선수

5년 전 '넥센타이어 RV 챔피언십'과 함께 레이싱을 시작한 이동호 선수. 매년 출전하며 좋은 기량을 선보인 그는 올해 역시 유력한 종합우승 후보 중 한 명이다. 안산에 본사를 둔 전국체인 정비튜닝업체 샤프카의 대표이기도 한 그는 같은 종목에서 3위를 한 이선호 선수와 친형제로 더욱 특별한 출전자이기도 하다.

개막전 우승으로 시작이 좋다. 이번 대회 성적을 어떻게 예상하는가?

쌍용태풍에 소속되어 있을 때 종합우승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외에는 대부분 아쉽게 2~3위에 그쳤다. 그래도 욕심을 낼 생각은 없다. 경험상 경기 자체를 즐길 때 사고가 안나고 성적도 잘 나오는 것 같다. 같이 레이싱을 하는 팀원들에게도 출발전에 "니만 따라와라, 재밌게 타자"라고 얘기했다. 이번에도 열심히 하겠지만 순위나 성적에 대한 욕심보다는 재밌게 놀다가겠다.

안산 스피드웨이에서의 첫 번째 경기다. 달려본 소감은 어떤가?

재밌었다. 태백에 비해 커브가 심한 편이라서 색다른 느낌이다. 아직 적응이 되지 않아 오늘 경기에서 휠이 연석에 부딪혀 깨진 팀원도 있는데 연습을 통해 익숙해져야 하는 문제다. 다행히 스피드웨이를 개방해 놓아 연습하기가 수월할 것 같다.

이번 대회에 사용한 N9000은 어땠나?

태백에서는 주로 N3000을 썼고 안산에서는 N9000만 사용해서 정확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 N9000의 접지력이나 코너링 성능은 우수했다.

레이싱의 매력은 무엇인가?

레이싱을 시작한 지 5년째에 접어들다. 돈도 많이 들고 힘들지만 중독성이 있다. 남자라면 누구나 스피드에 대한 욕심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생각보다 위험하지 않다. 레이서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비가 많다. 2008년에 카이런 한 대를 폐차할 만큼 큰 사고가 있었지만 몸은 전혀 다치지 않았다.

넥센타이어 사우들로 구성된 Team Roadian, 사내 동호회에서 출발해 이제는 4명의 선수를 키워내고, 매해 출전해 좋은 성적을 거두는 등 그 활약이 빛나는 팀이다. 이번 대회에도 Challenge 타임어택에 이정훈 사우가 출전해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업무에 소홀함 없이 잠을 줄여가며 성취와 꿈을 향해 달려가는 그들을 안산 스피드웨이에서 만났다.

대회에 출전, 입상하는 정도면 레이싱이 취미 이상이 된 것 같은데 어떤가?
배정현 팀장 - 레이싱은 매우 특별한 취미다. 흔치도 않을뿐더러 초기비용 외에 꾸준히 투자를 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흥미 이상의 열정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타 본 사람들은 누구나 아는 그런 중독성이 있다. 한번 레이싱의 매력에 빠지면 쉽게 헤어날 수 없다. 책을 읽으려면 밤을 못 새겠지만 차를 만지다 보면 금세 새벽이 오는 경우가 많다.

타이어 회사에 근무하는 것이 레이싱에 도움이 되는가?

송광석 매케닉 - 물론이다. 타이어의 특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연구원 등 전문가와의 거리도 가깝다. 서킷레이싱에서 타이어는 드라이버 다음으로 중요한 존재다. 드래그처럼 직선 주로에서의 폭발적 속도가 기록의 관건이라면 엔진의 성능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서킷에는 곡선도 있고 다양한 상황이 나오기 때문이다. 타이어 회사 직원이라서가 아니라 상황에 알맞게 대응할 수 있는 드라이버가 첫 번째이고, 버텨줄 수 있는 타이어가 두 번째로 중요하다.

평소 동료나 가족들의 반응은 어떤가?

이정훈 선수 -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비용이 많이 드는 취미다. 결혼 전에는 이해를 해주던 아내도 요즘엔 눈을 흘길 정도다. 그래도 아이는 붕붕 타러가자며 좋아한다. 레이싱은 정말 미치지 않으면 못할 일이다. 주변에서 그만하면 됐다고 하는데 아직 젊고 그만큼 레이싱이 좋다. 다음엔 SGT에 도전할 생각이다.



● 팀 로드یان
팀장 공무파트 배정현 사우, 드라이버 정련파트 이정훈 사우, 매케닉 물류팀 송광석 사우



■ 2010 넥센타이어 RV 챔피언십 개막전 결과

NS150 타임트라이얼

- 1위 이승우 로직매핑
- 2위 김민성 모토리아
- 3위 최성권 ENP레이싱

RS200 레이싱

- 1위 김창수 팀카라인
- 2위 박용진 천안샤프카
- 3위 황기환 팀카라인

CHALLENGE 타임어택

- 1위 김영렬 천안샤프카
- 2위 김도형 개인
- 3위 김태훈 YESACTYON

TDR-TT A 타임트라이얼

- 1위 김호겸 로직매핑
- 2위 김태호 팀라프레이싱
- 3위 우승현 팀라프레이싱

TDR-TT B 타임트라이얼

- 1위 김장호 개인
- 2위 이상훈 개인
- 3위 이 철 GENE

SGT 타임레이스

- 1위 이동호 샤프카
- 2위 오한솔 광주샤프카
- 3위 이선호 샤프카



2009년 9월 28일 MOU 체결, 그해 11월 11일 경상남도 창원군에 투자항서 제출, 이듬해인 2010년 5월 6일 산업단지계획 인가 승인, 그리고 2010년 6월 24일 기공식까지. 참으로 숨가쁘게 달려왔다. 경상남도 창원군 대합면 총 50만㎡(15만 평)의 부지에 글로벌 타이어사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디딘 넥센타이어. 2012년 3월 생산을 시작하여 2017년 연간 2,000만 개 규모를 갖출 넥센타이어 창녕공장의 이모저모를 속속들이 파헤쳐보자.

GREEN FACTORY 실현

넥센타이어 창녕 공장

그린에너지 시대를 선도할 넥센타이어

지난 6월 24일, 경상남도 창원군 대합면에서 제2공장 건설을 위한 기공식을 연 넥센타이어. 글로벌 타이어사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발판이 될 창녕공장은 2017년까지 총 1조 2천억 원이 투자되며, 완공 시 기존 양산공장과 중국공장을 포함해 현재 생산규모의 세 배 수준인 연산 6,000만 개의 타이어를 생산하게 된다. 이번 투자는 해외 투자를 지속해 온 경쟁업체들과 달리 국내로 방향을 돌려 이루어진 대규모 투자라 업계 및 소비자에게도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더불어 공장이 가동되면 해외가 아닌 국내에서 약 2,000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도 예상되어 호평이 이어졌다.

최근 세계무대에서 넥센타이어의 기술력이 높게 평가받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넥센 히어로즈, RV 챔피언십 등 다양한 마케팅으로 브랜드 인지도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창녕공장 건설은 급증하는 국내외 주문량과 소비자의 기대 모드를 만족시키는 방안이 될 것이다. 특히 현대·기아차 등 국내 완성차 업체로부터 중대형 차량의 신차타이어 납품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중점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창녕공장은 2012년 3월 이후 본격적으로 친환경, 저연비, 고성능과 같은 그린에너지 시대를 선도하는 제품생산 및 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다. 고유가 시대가 도래하면서 자동차 구매 패턴이 변화하고, 이에 맞춰 저연비 기능을 갖춘 친환경 타이어가 주목받음에 따라 전 세계 타이어사들이 친환경 제품을 속속 개발,





출시하고 있다. 넥센타이어 역시 이러한 트렌드에 발맞추어 창녕공장에서 본격적인 친환경 타이어를 생산할 예정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최소화하고 연료효율을 최대화하는 등 제품의 수명을 연장한 친환경 타이어를 생산하는 것은 물론 친환경 원료를 적용하거나, 클린에너지 ·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등 생산과정과 원료에서도 친환경 기술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세계 타이어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다.

창녕공장을 대표하는 3가지 키워드

친환경, 자동화, 미래형의 창녕공장은 양산공장 및 중국공장과 차별화된, 체계적 제품 생산으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게 된다. 2012년 가동을 시작으로 2017년 투자완료 시점에는 일 6만 개, 연간 2,000만 개의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되며, 승용차용, 경트럭용 타이어를 생산하는 최첨단 친환경 공장으로 건설된다. 이를 통해 넥센타이어는 세계 시장의 관심사인 저연비, 친환경 제품을 생산해 글로벌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세계 10위권 타이어사 등극 및 국내에서의 본격적인 3강 체제를 형성할 전망이다. 창녕공장을 대표하는 3가지 키워드를 통해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자.

- 창녕공장은 친환경 공장이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녹색성장 정책에 발맞춰 'Green Factory'를 적극적으로 지향하는 창녕공장은 고효율 기자재를 사용하

고, 태양열 및 폐열을 이용한 다양한 시설을 적용해 에너지 절감에 힘쓰며, 공장 내부 환기 시설을 강화해 대기 오염을 최소화한다. 또 작업장 분진 및 악취를 줄이기 위해 첨단 설비를 사용해 양산공장의 Clean Factory 정신을 잇고, 폐수의 무단방류를 차단하는 시설도 설치된다. 부속 동 전체를 자연환경과 잘 어울리도록 하는 것은 물론 외관까지도 친환경 녹색공장의 이미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짓는다.

- 창녕공장은 자동화 공장이다. 공정 물류부터 설비, 전산, 관리까지 모두 자동화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로써 직원들의 노동 강도를 감소시키는 것은 물론, 제품의 품질이 우수하고 균일해지며, 효율적인 생산관리로 작업 능률이 높아져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진다.

- 창녕공장은 미래형 공장이다. 2012년부터 유럽에서는 소음, 연비, 접지력에 각각 등급을 제시하고 이에 맞지 않는 타이어는 수입을 허가하지 않는 타이어 라벨링 규제가 시행된다. 이 규제는 우수한 기술력의 타이어를 검증하는 또 하나의 기준으로 창녕공장에서는 이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타이어를 생산할 것이다. 그 밖에도 최근 다양하게 시행되는 국가별 환경 규제나 각종 환경 인증에 선도적으로 나설 수 있는 제품 개발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한 저연비 타이어들을 충분히 연구 개발할 예정이다. ㉞



창녕공장의 생산공정

● **MIXING ZONE(정련공정)** 타이어의 주재료가 되는 천연고무, 합성고무, 카본블랙과 환경규제 및 차량 연비 절감을 위한 실리카 보강제 등을 적용하여 타이어 각 부위에 필요한 고무를 만들어 내는 공정. 생산된 혼합고무는 엄격한 시험검사를 거쳐 합격한 제품만이 반제품 설비로 이송된다.

● **압연공정** 도로에서 올라오는 충격을 흡수하고 타이어의 형상을 유지해주는 코드지 양면에 고무를 압하는 공정. 초고성능 타이어의 내구성 향상이 가능한 고성능 코드구조 적용에 따른 최적의 압연 설비를 도입하여 타이어 경량화를 시도하고 이를 통해 연비절감에 기여한다.

● **압출공정** 고무를 일정한 폭과 두께로 압출하여 타이어에서 노면과 닿는 부위에 해당하는 트레드와 타이어의 측면부분인 사이드월을 만드는 공정. 타이어 경량화에 맞춰 설계된 트레드, 사이드월 반제품 생산 시 균일한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제어설비가 도입된다.

● **비드공정** 강력한 스틸와이어에 일정한 두께의 고무를 입혀 여러 번 감아 휠 크기에 맞도록 원형으로 자동차의 휠과 닿는 부분인 비드를 제작하는 공정. 최신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여 보다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고성능 제품에 효율적으로 대응한다.

● **준비공정** 압연공정을 통해 만들어진 각종원단을 타이어 규격에 맞도록 일정한 폭과 각도로 재단하는 공

정. 고효율 생산 설비 채택으로 생산성이 향상되며 동시에 균일한 제품 치수 및 관리가 가능한 신제품 공정 기술을 적용한 설비가 도입된다.

● **성형공정** 앞서 만들어진 반제품들을 조립하여 타이어의 최초 형태인 그린타이어로 만드는 작업을 하는 공정. 풀 자동화 최신 설비 도입에 따라 면적대비 효율성 및 노동 강도 감소에 유리하며 적기작소에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 **가류공정** 그린타이어를 금형기에 넣고 일정한 온도와 압력, 시간을 가하여 타이어로 완성하는 공정. 금형기로 유입부터 검사공정으로 이동하기까지 모두 자동화로 이루어진다.



창녕공장의 이모저모

- **검사공정** 전수검사를 실시하는 외관검사와 눈으로 확인 불가능한 내부 이물질이나 스타벨트 등의 적합성 여부를 검사하는 X-ray검사, 타이어의 중량분포와 균일성을 확인하는 Uniformity와 Balance 검사 등 세 단계의 검사과정을 거쳐 결함요소를 발견하는 공정. 이 공정 역시 최첨단 자동화 설비가 도입되어 사람들이 노동 강도를 감소시켜 준다.
 - **제품검사 및 보관(물류창고)** 타이어 분류 및 적재가 모두 자동화로 이루어지며, 공정관리가 단순화되어 물류 효율화가 뛰어나다.
- 공정의 물품들이 모두 자동화로 이루어지므로 환경적

측면에서도 Clean Factory가 유지된다.

- **UTILITY ZONE(유틸리티 존)** 공장설비에 필요한 전기, steam, 냉각수를 공급하는 공간
- **본관동** 1층엔 홍보관을 비롯한 다목적실, 대회의실 등 홍보존이 있어 직원 외에 외부 인사에게도 넥센타이어를 충분히 홍보할 수 있도록 구성. 그 외에도 교육실, 전산실, 임원실 등이 들어선다.
- **중앙광장** 공장건립이념인 Green Factory에 맞도록 공장에서 녹지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이다.
- **저류지** 저류지를 활용하여 외부 운동시설로도 운영이 가능해 축구 등을 즐길 수 있다.
- **대운동장** 직원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스포츠 동호회

활동 장려의 목적으로 마련된 대형 운동장이다.

- **연구동** 친환경제품, 저연비제품, 고성능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재료의 특성을 연구하는 화학, 물리 실험실이다.
- **시험동** 완제품의 성능을 테스트하는 특성 연구동이다.
- **Mold창고** 타이어 완제품 형상 (문양 및 문자 등)이 새겨진 금속 틀인 Mold를 점검하고 문제가 있을 때 수리하는 부서로 Mold 관련 전체 업무를 관리한다. Mold 창고는 전체 자동화로 관리하며 지정된 장소에 지정된 Mold가 자동으로 보관된다.
- **복지동** 직원들의 쾌적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복지동에는 소비조합 및 체력단련실, 샤워실 등이 있다.



새 옷 갈아입고 손님맞이

타이어테크는 넥센타이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타이어 판매대리점으로 그 규모에 따라 타이어 외에 휠을 판매하기도 하고, 차량 경정비를 함께 하기도 한다. 5년 전 부산지역에서 처음 시작된 타이어테크는 넥센타이어와 함께 성장하며 그 수와 규모가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2009년에는 슈퍼타이어테크라는 업그레이드 대리점까지 등장했다. 이러한 상승 추세에 맞추어 넥센타이어는 더욱 폭넓은 내수시장 점령을 위해 여러 개로 나뉘어졌던 전속대리점을 통합하고, 이미지 개선 및 쇄신을 시도, 타이어테크 대리점 리뉴얼에 나섰다.

리뉴얼 컨셉은 미래지향. 넥센타이어의 영문 로고에서 파생된 디자인으로 미래 기술의 지향점인 컴퓨터 단자와 유사하다. 브랜드 로고에서 따온 라인의 꺾임과 선의 느낌을 그대로 살리며, 동시에 넥센타이어의 상징색인 자주색을 그대로 적용하여 시각적 포인트를 주었다. 이와 함께 낮에는 은은하고 심플하게, 밤에는 강렬하게 빛나는 조명을 사용해 이동하는 고객의 시선을 사로잡게끔 했다. 더불어 활자 역시 넥센타이어의 스피드한 서비스를 드러낼 수 있는 액티브함과, 오래가는 품질의 견고함이 표현될 수 있도록 디자인했다.

이러한 디자인은 타이어테크라는 대리점에 넥센타이어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건물 내·외관에 심어줌과 동시에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브랜드의 지향점을 고객에게 어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자주색과 검은색으로 구성된 색상과 간판에 새겨진 넥센타이어 로고와 상호는 대리점주에게 넥센타이어에 대한 브랜드 소속감을, 고객에게는 넥센타이어 전속 판매점이라는 신뢰를 줘 일거양득의 효과를 노린다. 타이어테크 일산점 완공을 시작과 동시에 이를 롤모델로 삼아 전국 16개의 대리점을 리뉴얼할 예정이며, 각 대리점의 특성에 고급스러운 느낌을 더해 새로운 모습으로 고객 앞에 나타날 것이다.





확 바뀌었습니다! 타이어테크 리뉴얼


2005년, 넥센타이어 전속 대리점으로 출범하여 넥센타이어와 함께 성장해온 타이어테크. 높아져가는 넥센타이어의 위상만큼, 타이어테크의 규모도 확대되고 있다. 2010년, 일산점의 대대적인 리뉴얼을 시작으로 또 한 번의 비상을 꿈꾸는 타이어테크. 소비자와 한층 더 가깝게, 또 브랜드의 인지도까지 제고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대리점 리뉴얼 내 용이 궁금하다면 지금 이 곳을 주목하자.



리뉴얼 1호점, 일산점

“옷걸이가 좋아야 옷도 예뻐 보이는 법이잖아요?” 타이어와의 인연 25년, 타이어테크로 맺은 넥센타이어와의 인연 5년. 타이어테크 일산점 박래옥 대표는 넥센타이어의 발전 가능성을 보고 타이어테크를 시작했다. 넥센타이어의 제품력에 큰 신뢰를 가지고 있었던 박 대표는 처음 부터 UHP타이어 N7000에 주목했다. 자신의 차량에 N7000을 직접 장착하고 달려보니 편안한 승차감과 적은 소음이 매력적이었고 직원들 역시 곧바로 N7000의 팬이 되었다. 그래서 N7000을 주력제품으로 삼아 휠과 함께 번들판매를 시도했다. 그 결과는 대성공. 단일 대리점 으로는 N7000 제품을 가장 많이 판매하는 대리점이 되었다. 일산점에 오는 손님 중 절반 이 상이 N7000을 찾아오는 손님일 정도로 유명세를 타니 넥센타이어에 대한 그의 애정이 큰 것은 당연지사. 그래서일까, 타이어테크 리뉴얼 제안에도 흔쾌히 승낙했다. 마침 대리점을 반 대편으로 이전하려고 준비 중이었던 지라 시기도 잘 맞아 떨어졌다. 그렇게 3개월간의 공사 를 거쳐 리뉴얼된 타이어테크 일산점의 모습은 놀라웠다.

눈에 띄는 변화로는 간판의 모습과 타이어랙이 사라진 점을 들 수 있었다. 자주색을 바탕으로, 흰색을 활자를 사용해 고급스럽고 세련된 느낌을 부여했고, 넥센타이어라고 새겨진 글자 는 타이어테크가 넥센타이어의 전속대리점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어필해 보다 전문적인 대리점 의 느낌을 주었다. 또 간판 위 타이어랙을 제거해 대리점을 더욱 깔끔해 보이게끔 했다. 그 밖 에도 고객상담실과 벽면 역시 자주색을 사용해 통일감을 부여했으며, 전체적인 장식을 선과 면으로 심플하게 구성해 대리점 특유의 느낌을 없앴 점도 돋보였다.

박 대표는 일산점의 리뉴얼을 시작으로 여세를 몰아 수도권 쪽에서 UHP 및 고수익 제품 판매 1위를 하는 대리점이 되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뛰어난 승차감, 놀라운 저소음, 경제적 마일리지 당신이 바라는 모든 것, Harmonious 패밀리형 타이어 CP672

최근 최첨단 기술과 설비가 늘고, 현명한 운전자들이 등장함에 따라 타이어에 대한 요구 수준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편안한 승차감, 조용한 외부소음, 고속 코너링 시 안정된 핸들링, 빠르게 반응하는 조종 응답성, 연장된 제품 수명 등 팔방미인형 타이어가 주목받고 있다. 그리고 바로 이 트렌드에 맞춘 타이어가 넥센타이어에서 출시되었다. 넥센타이어가 전략적으로 내놓은 신제품 CP672의 모든 것을 집중 조명해 보자.

신개념, 신형상, 감성 디자인의

세련된 차별화

CP672는 시각적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빗길에서의 배수성능 및 제동성을 극대화한 제품이다. 이는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트레드부 중앙에 넓은 그루브 위치와 폭을 최적 설계함으로써 유동적인 유체 흐름 통로를 확보하고 유입되는 배수량을 최대화했기 때문이다.

또한, 견고한 Wide Center Rib 적용으로 연속적인 접지가 가능해 급격한 핸들조작 시 차량의 중심을 유지하기 쉽도록 숄더 블록 보강 설계를 적용하여 탁월한 핸들링 및 조종 응답성이 강화되었다.

부드러운 드라이빙을 즐기고 싶은 당신을 위한

뛰어난 승차감

CP672는 편안한 승차감을 자랑하는 Harmonious 패밀리형 타이어로 OBCS, OCCS 두 가지 기술을 적용했다.

OBCS(OPTIMIZED BELT CONTOUR SYSTEM)설계기법은 FEM해석(Computer Simulation)을 통해 벨트부의 형상을 최적화한 설계기법으로 노면과의 접지부 압력을 최소화하여 승차감을 높이고 균일하게 분할된 접지 현상을 유지하여 빗길 및 마른 노면에서 제동력을 향상시키는 기술이다. CP672의 뛰어난 제동력은 앞서 가는 드라이빙을 제공하여 새로운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OCCS(OPTIMIZED CARCASS CONTOUR SYSTEM)설계기법은 카카스 프로파일로 인공 신경 회로망 설계이론을 적용하여 고속 주행 시 타이어 형상 변화를 최소화하고 균일한 최적면 분할을 실현하여 고속 조종 안정성을 강화하는 기술이다. 이를 통해 급커브 주행 시 안정된 핸들링 및 승차감을 느낄 수 있다.

소리가 사라진다!

당신의 감성을 충족시키는 최고의 정숙성

자연적 이미지를 반영한 유기적 횡그루브 디자인과 블록의 최적인 5Pitch 배열을 활용하여 타이어가 노면에 접지할 때 외부 압력을 최대한 분산시켜 낮은 음압과 부드러운 음색으로 정숙성을 실현하였다. 소음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행 중에 타이어의 접지면에서 발생하는 Tire sound Quality를 향상시키기 위해 저소음 설계기술 Silence system을 도입하여 음의 높이, 크기, 음색을 최적화해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주파수 범위에서 가장 쾌적하고 부드러운 음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오직 CP672에서만 누릴 수 있는 Mileage 테크놀로지

CP672는 폴리머 미세구조를 최적화한 특화 컴파운드와 꾸준한 연구 끝에 개발된 최적 필러 설계기술을 접목하여 제품 내구성의 극대화를 꾀했다. 패턴 블록의 강성을 최적으로 배분하여 접지부 형상과 접지압력 분포를 최적화함으로써 편마모 등의 이상 마모를 최소화하고 균일한 마모 양상을 실현하는 트레드 패턴 단면적 비율 최적 설계 방법이 도입되었다.

또한, 숄더블록면적의 균등설계를 통한 접지압 분포의 균일화로 내마모성을 향상시키고 블록 진동 소음은 감소하는 탁월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 그 밖에도 숄더부에 Wing 타입의 Edge 홈을 채용하여 주행 시 발생하는 열을 신속히 방출함으로써 내구성을 향상시키는 등 향상된 면모를 보여주었다.

이처럼 현명한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모든 성능을 충족하면서 최대의 만족감을 주는 Harmonious 패밀리형 타이어 CP672는 그 누구도 넘지 못한 기존 제품들의 성능 한계선을 지금 이 시점부터 한 걸음씩 넘어갈 것이며, 앞으로 끊임없이 소비자들의 사랑을 독차지하여 High Performance 타이어 제품군 중에서 명실상부한 명품으로 최고의 가치를 자랑할 것이다. ㉞



CP672 신제품 발표회

● Harmonious 패밀리형 타이어



국내, 해외시장 공략할 넥센타이어의 새로운 주력모델

넥센타이어 임직원은 물론, 서울과 경기지역 지점장, 대리점주 등 신제품 CP672의 공개를 기다리는 인파로 가득했던 서울지사 교육장. 2010년 하반기 매출에 큰 변수가 될 새로운 제품에 대한 기대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었다. 오전 11시경, 계획대로 CP672에 대한 제품 발표회가 시작됐다.

우선 내수영업 담당인 박강철 이사의 환영사가 그 문을 열었다. 박강철 이사는 “바쁜 판매 현장은 물론 먼 지역에서도 넥센타이어의 신제품 발표회를 직접 찾아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모쪼록 이 지리가 영업과 사업 활동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감사를 표했다.

프레젠테이션은 글로벌 마케팅 부문 상품기획팀 김권섭 차장이 진행했다. 본격적인 프레젠테이션에 앞서 김권섭 차장은 강한 자신감을 나타내며 CP672는 넥센타이어가 전략적으로 내놓은 새로운 하이 퍼포먼스 제품으로 국내외 영업현장에서 발로 뛰는 이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CP672는 승차감과 소음성능, 내마모성을 크게 높여 그 시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며, 내수는 물론 해외시장에서도 보다 공격적인 판매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후 프레젠테이션은 컨셉 및 개요, 사이즈 리스트, OE현황 등의 차례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특히 구조 및 컴파운드 OBCS, OCCS 등 넥센타이어만의 뛰어난 기술력으로 마모 및 내구성을 향상시키고, 조종 안정성, 승차감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점 등은 참석자들에게 큰 이슈가 되었다.

넥센타이어는 사계절이 뚜렷한 국내 및 해외시장에서 중형차 이상의 차량 소비자에 집중적으로 어필할 예정이다. 특히 국내에서는 K5, YF소나타 등 중형급 차량을 대상으로 활발한 판매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글 편집실 사진 이명호



화려하고, 친절하고, 푸짐한 그곳

넥센타이어 홈페이지 새단장


흔히 정보화 시대라고 불리는 21세기는 인터넷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대부분의 기업이 신문, 방송이라는 매체 외에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활발히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넥센타이어도 홈페이지 www.nexentire.co.kr를 통해 온라인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그리고 2010년 10월 25일, 소비자에게 더욱 가깝고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해 넥센타이어 홈페이지가 옷을 갈아입었다. 한층 화려하고 친절하고 푸짐해진 넥센타이어의 새로운 홈페이지를 자세히 살펴보자.

더 가깝게, 더 친근하게

‘소비자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홈페이지를 만들자.’ 이것이 바로 이번 홈페이지 리뉴얼의 목표였다. ‘소비자에게 가까이 다가가려면, 무엇보다 재미있고 편리해야 한다’라는 생각 아래 모든 메뉴에 각각의 담당자를 지정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리뉴얼 작업을 진행했다. 마케팅커뮤니케이션팀 외에도 경영관리팀, 품질경영팀, 내수·해외영업관리팀 등 다양한 팀이 홈페이지 편집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다. 총 3개월, 소비자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가기 위해 넥센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식을 모으며 힘을 더한 결과 10월 20일 드디어 넥센타이어의 새로운 홈페이지가 문을 열었다. 새롭게 변경된 홈페이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빠르고 정확하게 넥센타이어의 제품 정보를 찾을 수 있다는 것. 소비자 친화적인 메뉴 구성이 그 열쇠가 됐다. 기존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수집한 결과를 토대로 소비자가 많이 찾는 정보를

홈페이지 정면에 배치, 홈페이지에 처음 방문한 사람도 원하는 정보에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도달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제품 소개 부분도 강화됐다. 기존 텍스트 형식의 제품 소개를 이미지 형태로 변경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전문 용어 대신 친숙한 용어를 사용해 보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친절한 홈페이지'로 거듭났다. 더불어 팝업창 대신 하단에 원클릭 배너를 배치, 새로운 정보들도 깔끔한 형태로 정리했다.

그 밖에도 소비자를 즐겁게 할 코너도 강화됐다. 네이밍 스폰서를 맡아 활발한 스포츠 마케팅을 벌이고 있는 프로야구 팀 넥센 히어로즈, RV 챔피언십, CJ 슈퍼레이스와의 같은 스포츠마케팅을 활용한 메뉴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다이나믹한 정보들을 홈페이지에서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꾸준히 진행되는 이벤트 메뉴도 소비자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다. 또 트렌드에 맞추어 최근 급증하는 스마트폰 유저를 위해 스마트폰 전용 대문을 만들어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배려했다.

이번 홈페이지 리뉴얼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나날이 발전하는 넥센타이어와 함께 더불어 발전하는 리뉴얼이다. 리뉴얼 이후에도 한 달에 한 번 홈페이지 편집위원회 정기회의를 통해, 꾸준히 정보를 업데이트 하는 등 소비자들에게 정확하고 빠른 정보를 전달을 위해 꾸준히 나아갈 것이다. 



세련되고 화려한 비주얼

- 4개의 제품(N9000, N8000, N6000, CP672) 동영상과 기술 홍보 동영상
- 5개로 돌아가는 메인 페이지 적용
- 퍼플과 화이트를 컨셉으로 깔끔하고 세련된 느낌의 디자인 적용

친절한 정보, 다정한 서비스

- 가까운 대리점 찾기 기능 개선 넥센타이어 대리점 찾기는 단순히 주소와 전화번호만 노출되던 방식을 개선하여, 해당 대리점의 위치를 구글 지도로 보여줌으로써 위치 정보를 정확히 제공한다.
- 구매 상담 메뉴 신설 타이어를 구매하고 싶은데 정보가 없고, 대리점에 전화로 문의하기에는 부담을 느끼는 고객을 위해 이메일 구매 상담 메뉴 신설. 고객의 차량에 맞는 타이어 추천과 해당 타이어를 어디서 구매할 수 있는지 가까운 대리점 추천까지 가능하다.
- 내 차에 맞는 타이어 검색 내 차에 어떤 타이어가 맞는지, 차량 정보와 라이프 스타일을 입력하면 딱 맞는 제품을 추천해 주는 기능. 검색 타입도 롤링 선택으로 재미있다.

재미있고 다양한 볼거리

- 재밌는 정보들 넥센타이어의 인기 사보 <헬로우 넥센>을 홈페이지에서 E-book으로 볼 수 있다. 또 넥센타이어의 다양한 스포츠 지원 사업 넥센 히어로즈 소식부터, CJ 슈퍼레이스, RV 챔피언십과 해외 모터스포츠 소식도 함께 볼 수 있다.
- 푸짐한 이벤트 연중 실시되는 넥센타이어 고객을 위한 선물 이벤트. 다양한 이벤트가 항상 진행된다.
- 제품 정보 이미지를 통해 성능을 설명,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했다. 주요 패턴의 경우 홍보 영상을 탑재하여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한다.

어울릴수록 멋지고 안전한 친한 친구, 타이어 & 휠

지난여름 천연가스 버스가 폭발했다. 원인은 여러 가지겠지만 타이어에서 발생한 열이 빠져나갈 통로를 가스용기가 막아 폭발을 부추겼다는 견해도 적지 않았다. 만약 타이어 휠의 역할이 충실했다면 열의 방출이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 타이어와 휠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자동차 전체의 안전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타이어와 휠은 차량 관리에서 그다지 중시되지 않지만 내면을 살펴보면 안전에 가장 핵심적인 부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올해 미국에서는 의무적으로 타이어의 공기압 상태를 운전석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TPMS)을 장착하도록 했을 정도다. 타이어 휠 역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주춧돌로 중요한 부품이라고 할 수 있다.

자동차의 멋과 기능을 높이는 타이어 & 휠

최근 자동차 튜닝에 대한 마니아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국내의 자동차 튜닝은 허가보다는 불허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자동차 애프터마켓 중에서 가장 후진적인 개념을 가진 분야이다. 사실 이 분야의 선진형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고서는 자동차 산업이나 문화 발전에 한계가 있는 만큼 서둘러 선진형 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자동차 튜닝은 크게 외관을 중시하는 드레스업 튜닝과 성능을 중시하는 퍼포먼스 튜닝으로 나누어지며, 드레스업 튜닝 중 가장 주목을 받는 세부 분야가 바로 타이어 튜닝(휠 튜닝)이다. 타이어 튜닝은 외형을 부각시킬 때 가장 쉽고, 큰 효과를 내는 부분이면서 동시에 기능적 장점도 많다.

타이어는 차량의 크기에 비해 너무 작거나 커도 문제가 된다. 승용차의 경우 타이어가 너무 작아서 휠 하우스와 타이어 사이에 주먹이 하나 이상 들어갈 만큼 틈이 넓어지면 마치 남에게서 작은 신발을 빌려 신은 듯 어색해진다. 이는 디자인 완성도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뛰거나 착지하기 불편해 제대로 달릴 수 없는 것과 같다. 따라서 타이어가 너무 작으면 차량의 완충 역할에 불충분하고 달리기 성능이 떨어져 굼뜰 수밖에 없다. 반대로 타이어가 커도 문제다. 심하면 휠 하우스나 완충장치의 스프링에 닿기도 해 도리어 장애를 일으킨다. 딱딱한 승차감으로 차량을 망칠 수도 있다.

물론 타이어나 휠의 크기는 무작정 보기에 좋은 것만 장착하는 것이 아니다. 해당 차량이 낼 수 있는 엔진의 힘과 현가장치 등의 역할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출고되는 타이어보다 1~2인치를 크게 하는 '인치업' 작업을 통해 보기에도 좋고 기능적 역할을 충실히 하기도 한다. 이렇게 타이어나 휠을 키우고 광폭이 되면 노면과의 접지력을 커져 안정감을 높이고 자동차의 달리기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물론 동전의 양면같이 향상된 접지력은 연비 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도 충분히 인식하는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아름답고 강력한 알로이 휠

타이어 인치업과 휠의 교체는 자동차 튜닝을 시작한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쉽고 확실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이는 실수할 걱정이 없으며 자동차 안전과 멋을 함께 추구할 수 있어 큰 장점이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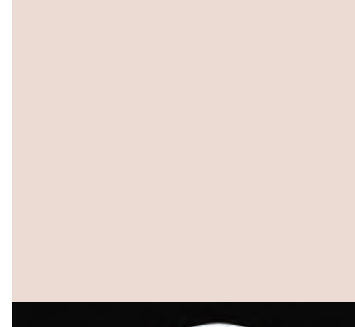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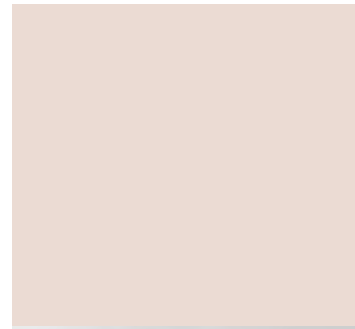
타이어 휠은 크게 철재로 된 스틸 휠과 알루미늄으로 만든 알로이 휠로 구분된다. 이제는 웬만한 준 중형차 이상은 모두 알로이 휠이 보편화된 것은 물론 경차도 알로이 휠이 모두 보급되어 스틸 휠이 자가용 세계에서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만큼 알로이 휠의 장점은 많다.

우선 최근 소비자가 차량 선택에서 가장 중시하는 외부 디자인의 완성도를 높여주는 영역이 바로 알로이 휠이기 때문이다. 멋있는 양복을 입고 있어도 여기에 걸 맞는 구두가 없다면 전체가 희석되는 것과 같이 그만큼 타이어 휠은 멋의 기본이 된다. 자동차 메이커에서도 신차 출시 때 마무리로써 신경 쓰는 분야 중의 하나가 바로 타이어 휠일 정도이다. 알로이 휠은 수십 만 원에서 수백 만 원까지 다양한 가격대와 모양이 출시되고 있다. 만약 가격에 부담이 있다면 중고 휠을 구입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중고차를 처리하는 경우 장착되어 있던 알로이 휠은 상태도 괜찮고 청소를 하면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알로이 휠은 스틸 휠에 비하여 타이어 등에서 발생하는 열을 빠르게 방출한다. 특히 더운 여름철 아스팔트를 오랜 시간 질주하면 타이어에서 발생하는 열로 경우에 따라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고 타이어 파열로 큰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다. 또한 강원도처럼 산악지역을 오르내릴 때 사용하는 브레이크의 열을 빠르게 방출하는 역할도 알로이 휠이 상당 부분 담당한다. 물론 알로이 휠 중에서도 모양에 따라 전체적으로 막혀 있어 열 방출이 적은 것이 있

는 만큼 디자인 측면과 함께 열을 빠르게 방출할 수 있는 구조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 끝으로 알로이 휠은 스틸 휠보다 훨씬 가벼워 차량의 기동성을 높인다. 또한 혹서라도 있을 수 있는 충격 상황에서 견딜 수 있는 강도가 높다는 것도 큰 장점이라 하겠다.

타이어 휠도 관리가 필요하다. 차량을 세차하면서 알로이 휠을 함께 청소하면 휠에 끼는 각종 이물질과 브레이크 패드에서 떨어지는 가루 등이 청소되면서 항상 새 것처럼 사용할 수 있다. 최근에는 타이어 휠용 스프레이도 나와 손쉽게 청소가 가능하게 되었다. 19



이것은 15년 전 장난처럼 일을 시작했던 어느 철부지 청년의 이야기다. 가진 것이라곤 다부진 성격이 드러나는 형형한 눈빛과 건장한 몸뿐이었던 그. 무엇이든 잘 해낼 자신은 있었지만 아직 무엇인지만은 가물가물 손에 잡히지 않던 시절이었다. 어느 날 친구가 말했다. 이번에 들어가는 직장에서 각자 1년을 버텨보자고. 먼저 그만두는 사람은 거나하게 한턱 쏘기로 벌칙도 정했다. 이 이야기의 결과가 궁금하다면 타이어뱅크 시흥대로점에 가보면 알 수 있다. 그때의 풋풋한 청년은 찾을 수 없지만 서울과 경기 지역의 타이어뱅크 16개 대리점을 관리하는 노련한 리더 박현우 팀장이 그간의 이야기를 재미나게 들려줄 것이다.

이제는 시스템이 자리를 잡아매일 16곳을 돌아볼 필요가 없다는 박팀장은 주로 시흥대로점에서 직접 기름때를 묻허가며 몸으로 뚫다. 적당히 할 때도 되었건만 15년간 몸에 밴 습관 덕분에 손님이 나타남과 동시에 가장 빠르게 반응하곤 한다. 시흥대로점은 서울과 경기 지역의 수많은 타이어뱅크 중에서 Best 5

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시흥대로에서 가장 큰 규모이자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리는 곳. 과연 보란 듯이 성공한 청년 박현우의 비결은 무엇까. 사무실을 살펴보니 “생각과 동시에 행동하라”고 또박또박 적어 놓은 글귀가 보인다.

“뜻이 있다면 열심히 달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직원들에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어떻게 살든 네 마음이지만 성실한 사람과 불성실한 사람, 행동하는 사람과 생각만 하는 사람이 나중에 얼마나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인지는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요.

그는 많은 매장을 관리하고 젊은 직원들과 어깨를 부딪치며 일하지만 잔소리를 하지 않는다. 생각이 있다면 행동이 더해질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다행히 그의 믿음은 통한 것 같다. 시흥대로점에 들어서자 돌림노래처럼 울려 퍼지던 반가운 인사, 낯선이에게도 살갑게 말을 붙이는 직원들의 다정함을 떠올리니 예전 그 청년이 어떻게 꿈을 이뤄갔는지 알 것도 같다. ④

타이어뱅크 서울 시흥대로점 |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904-13 Tel 02-808-3210

생각에 행동을 더하는 아주 간단한 원리

타이어뱅크 서울 시흥대로점

•



달리기를 말할 때 하고 싶은 이야기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맘대로 되지 않는 것들의 개수가 늘어난다. 계획은 자꾸만

헛كل어지고 빗나간다. 특히 몸은 더욱 제멋대로다. 슬그머니 고장이 나버리거나 대놓고 놀라게 만들기도 한다.

슬슬 이런 배신감이 명확해질 즈음, 사람들은 몸을 달래어 달리기 시작한다. 장기전에 돌입하는 것이다.

당장 근육이 불끈 솟아나거나, 활력이 넘쳐흐르는 않지만 마음이 이끄는 대로 몸을 몰아가는 느리지만 진한

성취감은 달리를 따라올 것이 없기 때문이다. 소설가이자 마라토너인 무라카미 하루키는 묘비에 이렇게 적고 싶다고

말했다. “적어도 끝까지 걷지는 않았다”고, 그의 말대로 마라톤을 완주한다고 해서

어디서도 룡키의 테마송이 들려오지는 않는다. 다만 여전히 달리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할 뿐이다.

내 나이가 이제 마흔을 넘겼기 때문이 아닐까? 어디선가 환청처럼 그런 소리가 들렸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내 발이 이제 늙어서 무리한 운동에는 탈이 난다면,

이러다가는, 아, 어쩌면, 그러니까 잘못하면 남은 인생 달리기를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구나.

아침부터 방바닥에 누워서 혼자 하는 생각치고는 무시무시했다.

달린다는 것,

재해석을 가능하게 만드는

사색적이고

그저저그인

한동안 게으름을 피우다가 다시 달리기를 시작할 때, 내가 주로 쓴 방법은 한 달 동안 매일 10km를 달리는 일이었다. 오랫동안 쉬면 달리기에 적응하는 게 참 힘들다. 처음 일주일만 다리에 알이 배이고 누우면 바로 잠들 정도다. 나는 주로 오후 6시 무렵에 달리는데 그 시간 이후는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피곤하다. 한 일주일 정도 그렇다는 걸 경험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2주째가 되면 슬슬 몸이 달리기에 적응하기 시작한다. 이제부터는 달리기를 거르지 않는 일만 남았다. 그런 식으로 이번 여름에도 하루에 10km를 달리는 것으로 다시 달리기를 시작했다. 보름쯤 달리니 1km당 평균페이스가 30초 정도 앞당겨져 5분 30초. 한 달을 달리니 다시 30초 앞당겨졌다. 해서 1km당 페이스는 5분.

여기서 돌발퀴즈. 그럼 다시 보름이 지난 뒤의 결과는? 이 질문의 해답은 다음과 같다. 아침에 일어나 침대에 서 오른발을 내딛는데, 발바닥이 갈라지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다. 맥없이 쓰러지는 수밖에. 누워서 생각했다. 이게 뭐지? 네이버에 물어봤더니 족저근막염이란단. 거기에는 “족저근막은 종골이라 불리는 발뒤꿈치 뼈에서 시작하여 발바닥 앞쪽으로 5개의 가지를 내어 발가락 기저 부위에 붙은 두껍고 강한 섬유띠를...” 운운하는 설명이 나와 있었다. 그런 건 내가 잘 모르겠고, 쪽 읽다 보니까 “즉 평소 운동을 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많은 양의 운동을 하거나, 장거리의 마라톤 또는 조깅을 한 경우, 과체중, 하이힐의 착용 등...”이라는 원인 설명이 있었다. 난 과체중도 아니고 하이힐도 신지 않으니, 이걸 평소 운동을 하지 않던 사람이 마라톤이나 조깅을 한 경우에 해당할 텐데...

42.195Km

대신에
이젠 무모한 달리기를 하는건

좀 멋진 일

계획을 세워서
달리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 십 년 간 나는 늘 이런 방법으로 다시 달리기를 시작했던 말이다! 그런데 도대체 왜 갑자기 나를 달리기 초짜처럼 취급하느냐 말이다! 그건 아마도 내 나이가 이제 마흔을 넘었기 때문이 아닐까? 어디선가 환청처럼 그런 소리가 들렸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내 발이 이제 늙어서 무리한 운동에는 탈이 난다면, 이러다가는, 아, 어쩌면, 그러니까 잘못하면 남은 인생 달리기를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구나. 아침부터 방바닥에 누워서 혼자 하는 생각치고는 무시무시했다. 그래서 나는 인터넷을 살살이 뒤졌다. 내게 꼭 필요한 자료를 찾기 위해서. 족저근막염은 원인을 제거하면 6개월 정도의 시간을 거쳐 서서히 낫는다는 등, 프로선수들에게 빈번한 질병이라는 등, 통증이 오래 유지되면 외과적 수술을 받을 수도 있다는 등, 뭐 그런저런 정보들을 지나 마침내 내가 도달한 것은 아픈 발바닥에도 불구하고 계속 달렸더니 1년 뒤에 족저근막염이 안드로메다 저편으로 날아갔다고 주장하는 어떤 사람의 글이었다. 따져볼 겨를도 없이 나는 그 사람 말을 믿기로 했다.

대신에 이젠 무모한 달리기를 하는 건 포기하고 계획을 세워서 달리기로 했다. 예전에는 달리기 계획을 세우는 일 자체가 번거로웠다. 달리기 계획은 천천히 달리기, 완급조절하면서 달리기, 오래 달리기, 언덕 달리기, 다른 유산소 운동하기, 휴식하기 등으로 이뤄져 있다. 보통 달리기 입문서를 보면 단계별로 어느 정도 빈도와 강도로 이 달리기를 반복하면 되는지 표가 나와 있다. 8주나 12주 정도의 시간표다. 하지만 요즘에는 GPS가 달린 스마트폰이 있어 달리기 계획을 짜는 데는 너무나 편리하다. 내가 사용한 앱은 Run Coach라는 것이었다. (또 다른 두 개의 필수 앱은 RunKeeper와 miCoach다.)

지금은 매일 운동하며

‘런 코치’의 8주 일정은 다음과 같다. 1주차. 월요일에는 다른 유산소 운동 1시간, 화요일에는 천천히 달리기 25분, 수요일에는 다른 유산소 운동 1시간, 목요일에는 천천히 달리기 30분, 금요일에는 휴식, 토요일에는 천천히 달리기 30분, 일요일에는 오래 달리기 45분. 그나마 이 일정은 일주일에 몇 번 달릴 것이냐고 묻는 앱의 물음에 “당연히 일주일이면 7일 전부!”라고 대답한 내 무모한 태도의 결과로 나온 뻘뻘한 일정이었다. 금요일에 쉬겠다고 나는 부탁한 적도 없는데, 앱이 알아서 휴식시킬 정도로 내가 원하는 일정은 말도 안 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하루에 10km씩 한 달 동안 250km를 달렸기 때문에 이런 일정은 식은 죽 먹기처럼 느껴진다. 뛰면서 “이건 재활훈련인 거야. 족저근막염만 사라지면 다시 콧김을 썩썩거리며 하루에 10km씩 달릴 테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다.

예전보다는 강도가 훨씬 덜 해졌지만, 여전히 좀 오래 달리고 나면 발바닥이 아프다. 해서 두 달째 나는 설렁설렁 뛰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설렁설렁 매일 뛰다 보니까 예전에는 몰랐던 사실을 하나 알게 됐다. 예전에 달리기를 할 때, 나는 그제 몸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피트니스(Fitness)라는 말 그대로 몸을 가장 건강한 체형으로 만드는 일. 나 같은 경우에는 한 달만 달리면 배는 들어가고 허리 살은 없어져 예전에 입던 바지들을 죄다 못 입는다. 몸무게는 1Kg 정도 줄어드는데, 외형은 5Kg 이상 빠진 사람처럼 보인다. 젊었을 때는 달리기만 이렇게 몸을 만드는 운동이라고 생각했다. 매시간 랩타임을 측정하고, 페이스를 조절하고, 최고기록을 시계에 저장하고 다닐 때의 일이었다.

이 여름을 지나왔다는 사실을 생각한다.

그건 정말 멋진 일이다.

맥주를 마실 때도
그 생각을 한다.

마흔이 넘어서도 나는 여전히 깨닫는다. 삼십대에는 내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알고

싫어서 달렸다. 그런데 이제는 나 자신과 내 삶과 내가 한 일들을

충분히 즐길 수 있을 때까지 달린다. 그 사이에 족저근막염이라는 게 있다.

그러므로 내게 족저근막염이란 몸의 운동에서 마음의 운동으로 달리기를 재정립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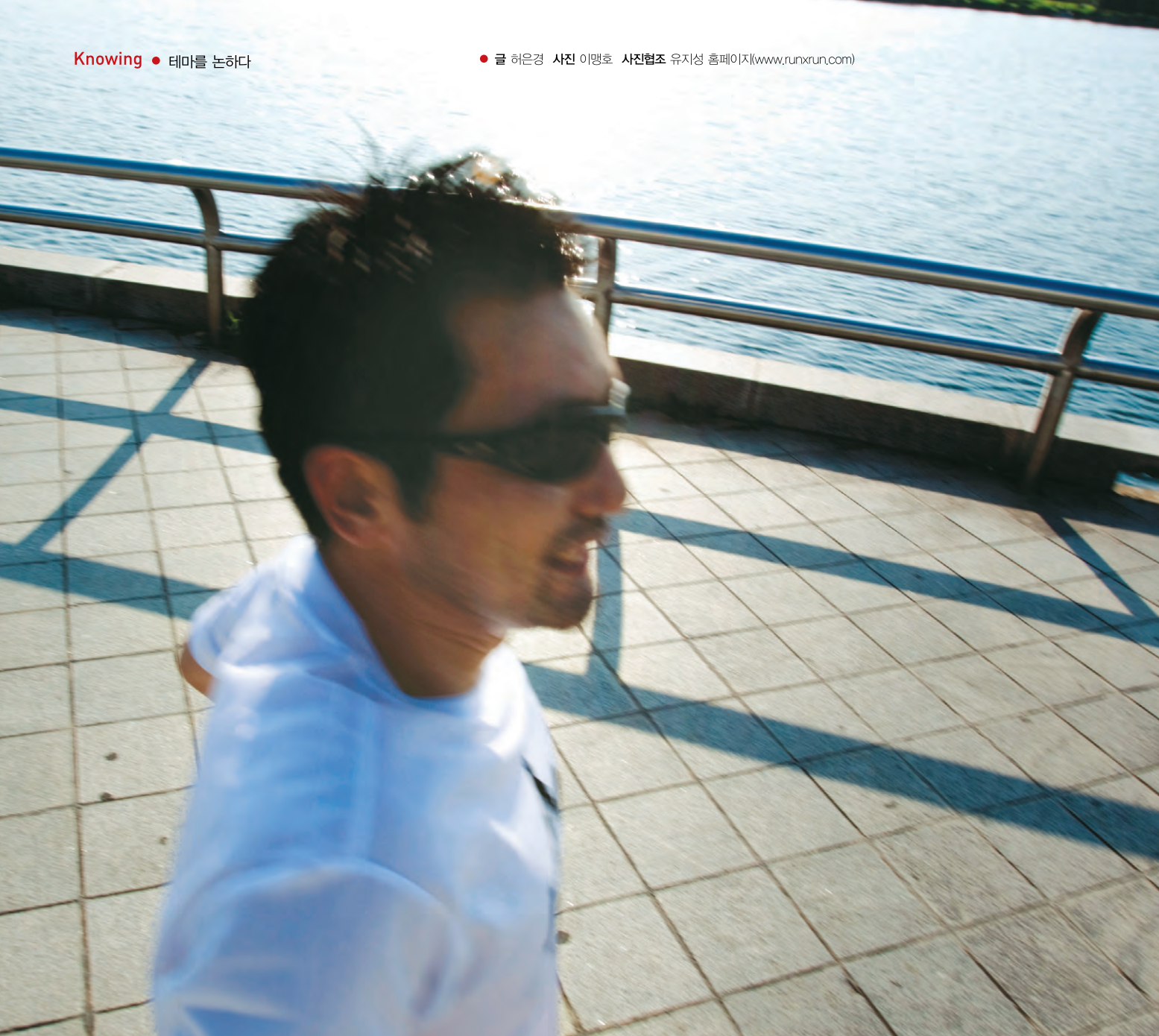
만드는 발바닥의 특수한 상태라고나 할까. 왜 달리느냐에 대한 대답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나는 이런 인생에 대한 창의적인 재해석을 가능하게 만드는

심리 상태에 이르게 하는 사색적이고 긍정적인 운동이기 때문이라고 답하고 싶다.

그런데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설렁설렁 놀면서 뛰면서 하다가 보니 달리기란 그보다 더 심오한 운동이라는 걸 알게 됐다. 지난 두 달 동안 내가 한 일이라고는 뭐가 있었는가? 그저 매일 30분에서 50분 정도 달렸고, 그나마 사이사이에 자전거를 한 시간씩 탔으며, 그것도 힘들까봐 앱의 일정에 따라 일주일에 한 번씩 쉬었다. 그랬을 뿐인데, 예전에 매일 10km를 달릴 때보다 만족감이 훨씬 많았다.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왜 목표를 정해놓고 달릴 때보다 설렁설렁 달리는 게 내 마음에 더 좋았을까. 그게 궁금했다. 그렇게 해서 나는 달리는 몸을 만드는 운동이 아니라 마음을 만드는 운동이라는 걸 서서히 깨닫게 된 것일까. 별다른 목표 없이 두 달 동안 설렁설렁 뛰고 나니 마음은 내가 한 일들에 집중하는 연습을 했다. 그전까지 달릴 때 내 마음은 내가 하지 못한 일들에 집중했었다. 예전대 나는 한 달에는 최소한 200km는 달려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니 나는 늘 200km만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은 매일 운동하며 이 여름을 지나왔다는 사실을 생각한다. 그건 정말 멋진 일이다. 맥주를 마실 때도 그 생각을 한다. 아무리 거품을 삼켜도 배는 나오지 않으리라. 나는 여름 내내 달렸으니까. 이걸 좀 멋지다.

마흔이 넘어서도 나는 여전히 깨닫는다. 삼십대에는 내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알고 싶어서 달렸다. 그런데 이제는 나 자신과 내 삶과 내가 한 일들을 충분히 즐길 수 있을 때까지 달린다. 그 사이에 족저근막염이라는 게 있다. 그러므로 내게 족저근막염이란 몸의 운동에서 마음의 운동으로 달리기를 재정립하게 만드는 발바닥의 특수한 상태라고나 할까. 왜 달리느냐에 대한 대답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나는 이런 인생에 대한 창의적인 재해석을 가능하게 만드는 심리 상태에 이르게 하는 사색적이고 긍정적인 운동이기 때문이라고 답하고 싶다. ㉞



우리 심심한데 사막이나 달려볼까?

• 거침없는 오지마라토너 유지성

먼저 고백할 것이 있다. 나는 아마도 실패한 것 같다. 지난 10년간 사막, 남극, 정글 등에서 오지마라톤을 해온 유지성이란 사람을 만나 그가 왜 달리는지 듣고 이 지면에 옮기고 싶었는데, 아직도 모르겠다.

두 번을 만났고, 꽤 오랜 시간 문답을 주고받았으며, 그의 책을 읽고, 블로그도, 인터뷰기사도 살살이 훑었지만 '도대체 왜?'라는 질문에 대한 흡족한 문장을 엮어낼 자신이 아직도 없다. 큰일이다.



그럼에도 아라비안나이트처럼 흥미진진한 그의 말 허리를 자르며, 몇 번쯤 ‘그런데 왜 달리느냐’고 물었던 것 같다. 그도 모른다고 했던가. 거창하고 심오한 이야기는 해줄 것이 없으니 대신 재밌게 수다나 떨자고 했다. 그의 말대로 짙은 땀 냄새와 고통, 인내로 가득하길 기대한 내용은 점점 엇나가기 시작했다. 대신 “재밌으니까!”라는 단순하고 유쾌한 반전이 이어졌다.

Hi, Crazy! 하이 크레이지!

오지마라톤에도 그랜드슬램이 있다. 사하라 사막, 고비 사막, 아타카마 사막 등 3곳의 사막에 남극을 더해 셈한다. 오지마라톤러 유지성 씨는 네 곳을 모두 완주한 그랜드슬러머다. 지금까지 달린 총 거리를 따져보니 4,000km를 훌쩍 넘어선다. 정해진 길을 달리는 일반 마라톤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땀마저 증발해 버리는 사막과 콧물까지 얼어버리는 극지였을까.

“건축설계를 할 때 한 3년간 리비아에서 일을 했어요. 어릴 적부터 낙타를 타고 사막을 횡단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곤 했는데 막상 리비아에 가보니 기회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위성방송에서 소개하는 사하라 레이스를 보고 ‘저거라도 해볼까’ 하는 마음에 일을 저질렀죠.”

우리나라로 돌아와 회사에 사표를 내고, 참가신청과 함께 바로 참가비를 입금했다. 빼도 박도 못하도록. 그리고 90kg이었던 몸을 6개월만에 74kg으로 만들었다. 그렇다고 거창한 트레이닝을 한 건 아니고 집 앞 학교운동장을 매일 조금씩 거리를 늘려 가며 뛰었다.

사람들은 그에게 미쳤다고 말했다. 마라톤 풀코스



도 한번 뛰어보지 않은 사람이 사막 대회가 가당키나 하냐고. 유지성 씨도 이해하기 어려웠다. 왜 꼭 똑같은 방법으로 달려야 하는지, 남들이 안 하는 달리를 하는 것이 그렇게 욕을 먹어야 할 일인지. 그래서 좀처럼 ‘다른’ 생각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달리기 판에 더 이상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 그냥 “알았어, 그냥 나 혼자 놀다 올게”라고 스스로 길을 찾기 시작했다.

“1등이나 꼴찌라는 등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하라를 달린다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사막에 가면 참가자들끼리 ‘Hi, Crazy!’ 라고 인사를 해요. 서로 단단히 미친 걸 알아는 거죠. 요즘은 제 소개를 할 때 ‘오타쿠’라고 미리 말을 합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하든 그건 실수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즐거운 삶이 조금 다를 뿐이라는 거죠. 세계의 오지를 달리는 것이 미치도록 즐거운 사람도 있는 거구요.”

유지성 씨가 지금까지 여행한 나라는 약 30여 개국.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기회만 되면 밖으로 돌았다. 집을 쓰는 일, 떠나는 순간, 비행기를 타는 것, 새로운 풍경을 접하는 일, 다시 또 어디를 갈까 궁리하는 여행의 모든 면이 좋았다. 그에게 달려서 사막을 건너는 일도 여행이다. 좀 독특한 여행이랄까?

뛰면서 하는 여행, 뛰면서 보는 세상

자신은 마라톤러지만 운동을 좋아하지도 않고, 훈련도 하기 싫어한다. 다시 한 번 반전이다. ‘마라톤러는 이럴 것이다’라는 편견이 싫다는 유지성 씨.



사막에서는 누구나 혼자다.

사막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짐을 지운다.

자기가 짊어지고 갈 무게만큼 먹을 수도 마실 수도 있다.

못 먹으면 뛰지 못한다. 온전히 자립해야만 살아 나가는 곳이다.



열심히 챙겨 먹는 미용비타민 덕에 피부도 뽀얀 마라토너다.

“운동은 싫어하는데 기초체력이 좋은 편이라 다행이죠. 그래도 살이 쉽게 붙는 체질이라 꾸준히 체중조절을 하고요. 난이도가 높은 레이스는 가기 직전 한 달 정도 훈련을 하지만 쉬운 곳은 대충 갑니다. 길면 6박7일, 짧게는 1박2일을 뛰는데 처음엔 힘들다가도 사막으로 들어갈수록 점점 기운이 나죠. 물론 제가 특별한 게 아니라 누구든 할 수 있고요.”

신기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16번의 오지마라톤을 모두 완주했고, 다른 일반 마라톤도 문제없이 뛰었다.

더욱 솔깃해지는 것은 오지마라톤 에이전트로써 지금까지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을 사막으로 인도했는데, 마라톤 경험이 없는 사람도 90% 이상이 완주를 해냈단다. 기본적으로 아주 독한 국민이며, 열정이 에너지를 만들기 때문이라고.

“리더가 운동 안 하고 매일 놀면서도 완주를 하니까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하고 용기를 내는 거죠. 물론 그러면서도 범접할 수 없는 내공을 지녀야 하겠지만 눈높이를 낮추려고 노력해요. 혼자 잘난 척할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오지마라톤의 재미를 느끼도록 기회를 열어두고 싶어요.”

유지성 씨의 별명 중 하나는 ‘사막의 짝사’. 그의 표현으로는 오지마라톤 ‘셀카질’의 원조란다. 즐겁거나, 아름다운 풍경을 만났을 때는 물론, 힘들어 죽을 것 같은 망가진 모습도 셀카로 남긴다. 한번 레이스



를 다녀올 때마다 약 1,000여 장의 사진을 찍어온다. 멀리 사막까지 가서 죽을 등 살 등 인상 쓰며 달리는 것이 보기 싫어 재밌게 뛰고자 고안해 낸 놀이의 하나이다.

“달리기를 해보니까 재밌게 살 수 있어요. 뛰면서 바라보는 세상은 약간의 속도감을 즐기면서 놓치는 것도 없어요. 걷는 것은 조금 지루하고, 자동차는 너무 빠르죠. 그런데 뛰는 것은 내가 속도를 조절할 수 있으니 마음껏 즐길 수가 있어요.”

유지성 씨는 대화 내내 ‘재밌으니까’, ‘신 나니까’라는 말을 거듭했다. 50도를 오르내리는 사막을 자신의 식량을 줄여진 채 6박7일간 300km를 달리는 일과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였다. 그의 블로그에서 본 발가락은 물론 발바닥까지 생긴 물집으로 고생하는 사진을 떠올리면 오지마라톤이 마냥 신나는 일만은 분명 아니다. 어쩌면 얼마간의 고생보다 훨씬 큰 재미가 모진 환경과 상처를 다 잊게 만들었는지도 모른다. 마치 아이 키우는 재미에 산고를 망각하는 어머니들처럼.

“사하라 사막의 밤은 잊을 수가 없어요. 밤에 사막에 누우면 이쪽 지평선부터 반대쪽 지평선까지 별로 가득해요. 보고 있으면 어느 순간 빨려 들어갈 것만 같죠. 남극에서 본 오로라도 섬뜩할 만큼 신비로웠고요.”

사막과 달리기를 이야기하는 그의 눈에도 반짝반짝은하수가 흘렀다. 그 눈빛은 마치 “당신은 진정 재미나게 살고 있습니까?”라고 묻는 것 같았다. 듣는 사람만 갈팡질팡 흔들렸지 그의 이야기는 줄곧 하나의 길을 달렸던 것이다. ㉮



달리기, 그까이꺼

돈 없이, 맨 몸으로,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운동은 단연 달리기. 운동 좀 한다는 사람에겐

동네 골목 달리기 정도는 그냥 몸 푸는 수준이다.

하지만 달리기에도 준비가 필요하고 순서와 단계가 있다.

오늘 어디 한 번 달려볼까를 고민하는 사람을 위해 준비했다.

‘그냥 뛰면 되지 뭐가 필요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달리기란 운동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자. 가볍게 동네를 걷는 워킹, 공원을 달리는 조깅, 힘 있게 달리는 러닝, 오랜 거리를 달리는 마라톤까지 달린다는 의미를 담은 운동은 다양하다. 느리게 혹은 빠르게, 평지 혹은 평지가 아닌 곳을 뛰는 것에 차이일뿐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지만 그만큼 기본을 지켜야 안전하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음을 명심하자.

기본을 지켜야 하는 운동

‘달리기가 건강에 좋다’라는 막연한 정보만 믿고 무작정 달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는 자칫 몸을 축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달리는 산소 섭취량을 높여주고 심장과 폐를 튼튼하게 하며 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는 등 다양한 건강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접근하지만 무조건 달린다고 다 건강해지는 것은 아니다. 간혹 ‘조깅 중 돌연사’나 ‘마라톤 대회 중 사망’ 기사에서 보듯 호흡이나 혈압, 맥박에 이상이 있는 경우 달리기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작용을 할 수도 있다. 그렇기에 자신의 몸에 무리를 주지 않는 선에서 적절한 조절이 필요한 운동이다. 더불어 지나친 것은 모자람만 못하다는 말이 있듯 달리기에서 지나친 의욕과 패기는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달리기 초보라면 빨리 달리거나 오래 달리기보다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마음가짐부터 준비한다.

뛰기 전 마음의 준비를 끝냈다면 쿠션이 좋은 조깅화와 땀을 흡수할 편안한 복장, 양말 등의 준비물이 필요하다. 또한 앞으로 몸에 자극이 가해질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 폐와 심장의 부담을 덜어주고 부상예방을 위해 15분 정도 스트레칭으로 워밍업하는 건 필수. 다리, 가슴, 허리 순서로 근육을 풀어주어야 근육통이나 관절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 처음 달리를 할 경우 800m를 7분에 달릴 정도로 최대한 여유 있게 시작해 점차 시간과 거리를 조금씩 늘리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뛰는 중 달리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바른 자세로 달리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다. 모든 운동이 그렇듯 달리기 도 바른 자세로 임해야 몸에 무리가 가지 않고 운동 효과도 높아진다. 달릴 때 올바른 방법은 입을 가볍게 벌려 호흡하면서 고개는 편안하게 들어 발끝을 보지 말도록 하고 등은 곧게 편 상태에서 팔은 몸통으로부터 약간 떨어지고 지면과 평행이 되도록 한다. 발꿈치부터 바닥에 댄 후 앞으로 전진하되 힘들면 발바닥 전체가 닿도록 하고 처음에는 급하게 보폭을 멀리하지 말고 비교적 적게 두고 달린다. 요령이 붙었다고 해도 일주일에 24km 정도 범위 내를 달리는 것이 근관절 손상을 입지 않은 적당한 거리라고 하니 이 범위 내에서 달리를 즐긴다.

뛰고 후 그냥 운동을 끝내는 것이 아니다. 격렬한 운동을 한만큼 제자리 걷기 등으로 가볍게 움직이면서 운동의 강도를 서서히 줄이고 스트레칭으로 근육을 풀어야 현기증이나 근육통, 근경직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냥 뛰면 되는 거 아냐?



한계에 도전하는 울트라마라톤

아침저녁으로 공원이나 트랙을 뛰는 달리기가 슬슬 지루할 즈음이 되면 자신에 한계를 시험하는 마라톤에 도전해보자. 마라톤은 42.195km를 완주하는 것으로, 봄, 가을이 되면 자연을 벗 삼아 달릴 수 있는 다양한 대회가 열린다.

하지만 42.195km라는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한계에 도전한다는 매력에 달리는 사람들이 많지만 상당시간의 훈련과 체력이 뒷받침되어야만 이뤄낼 수 있다. 마라톤에 대한 열정과 패기만으로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풀코스에 도전했다가 레이스 후반 걷기조차 힘든 상태에 이르는 경우도 다반사. 굳이 마라톤 풀코스에 연연해 할 필요는 없다. 국내에서 열리는 대부분의 마라톤대회에는 5km, 10km, 15km 등 다양한 코스가 있으니 자신의 체력이나 훈련량에 따라 달리기 자체를 즐기고 대회를 선택하면 된다.

마라톤 풀코스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아 과연 어디까지 뛸 수 있을지 달리기의 한계에 도전하는 사람들도 있다. 마라톤의 업그레이드 버전쯤 되는 울트라마라톤은 마라톤 풀코스인 42.195km 이상의 거리를 달리는 대회. 정해진 거리를 달리는 것과 정해진 시간을 달리는 두 가지 방식이 존재하는데 6시간, 12시간, 24시간 심지어 이틀, 일주일 등 며칠씩 시간을 정해놓고 달리는 방식은 해당 시간 동안 누가 가장 긴 거리를 달렸는지를 판가름한다.

울트라마라톤의 가장 대표적인 종목은 50km, 100km이지만 거리는 무한정이다. 더블마라톤이나 미국, 캐나다, 호주 등 대륙을 횡단하는 마라톤 등 거리와 형식은 다양하며 트랙 순환을 비롯해 비포장도로, 산길 등 뛰는 코스 또한 천차만별이다. 현재 공인된 가장 긴 울트라마라톤 대회는 '얼티메이트 울트라 스리 친모이 1300 마일'로 매년 가을 뉴욕에서 개최된다.

거리와 시간을 초월해 '과연 이런 곳에서 달리기가 가능할까' 하는 사막이나 정글, 북극이나 남극 등을 달리는 오지마라톤도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오지마라톤은 세계 4대 사막마라톤 대회. 중국의 고비 사막, 칠레의 아타카마 사막,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 남극의 극지를 달리는 코스로 참가자들은 총 250km의 거리를 6박7일 동안 음식 등 비상용품이 든 가방을 메고 달린다. 가히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달리기라 할만하다.

많은 마라토너들이 기록보다 달리는 그 자체가 좋아 자꾸 달리게 된다고 말한다. 달린다는 그 상황을 즐기기에 42.195km가 넘는 거리를, 걷기조차 힘든 오지를 자꾸 달리는 것이 아닐까. 오로지 자신과의 싸움일 수밖에 없는 달리기로 나 스스로의 한계가 어디인지 도전해보자.

달리기 가까이

PLUS 세계 이색 달리기대회

● 영국의 인간 VS 말 마라톤

인간이 달리기로 말을 이길 수 있을까? 영국의 작은 마을 란티드 웰스에서 매년 인간과 말이 함께 참여하는 이색 마라톤대회가 열린다. 1800년에 지역 유지인 고든 그린 씨가 우연히 술집에서 '충분히 긴 거리라면 인간이 말과 동등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람들의 논쟁을 엿듣고 '가능하다'는 주장을 입증해 보이려고 시작한 것이 별난 달리기의 발단이다. 인간 대 말 마라톤은 약 35km를 달리는데 더운 계절에 열리며 코스가 복잡하고 말이 15분이나 늦게 출발해 인간에게 유리해 보이지만 결과는 말이 압도적으로 우위다. 지금까지 인간이 우승한 경우는 2004년과 2007년 단 두 번뿐. 올해 열린 대회에서도 역시나 우승은 인간보다 10분여 일찍 결승선을 통과한 '슬라이 다이'라는 말이 차지했다.

● 핀란드의 아내 업고 달리기 wife-carrying

아내나 여자친구가 갇혀있을 때 가법다고 여기는 사람이라면 핀란드의 아내 업고 달리기 도전에 보라. 1992년부터 핀란드 동부지역의 손카야르비에서 시작된 경기로, 이 지역에 살던 헤르코 룬카이넨이라는 한 남자가 자신이 좋아하는 소녀를 어깨 위에 앉혀 다니던 것에서 유래했다. 올해로 15회를 맞은 아내 업고 달리는 여자 파트너가 17세 이상, 체중 49kg 이상이어야 참가할 수 있고 명칭은 아내 업고 달리기지만 꼭 부부가 아니어도 상관없으며 파트너를 업는 자세에 정해진 룰은 없다. 경기는 남편이 아내를 업은 상태로 연못, 허들 등 장애물을 통과해 250여m 가량을 가장 빨리 달리는 팀이 우승. 우승 커플에게는 아내(여자 파트너) 몸무게만큼의 맥주 등이 부상으로 주어진다.

●● 영국의 세계터프가이대회

영국 올드 파튼에서 매년 2월 열리는 세계터프가이대회는 시작부터 각오를 단단히 해야 된다. 다치거나 죽더라도 이의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쓰고 시작해야 하니까. 특수 훈련장을 방불케 하는 대회장은 12.9km를 달리는 크로스컨트리 코스와 이른바 킬링필드(Killing Fields)라 불리는 24개의 장애물이 설치된 3.2km 코스로 나뉜다. 진흙탕 길과 불길에 휩싸인 참호, 12m 높이의 벽, 가슴까지 차오르는 물웅덩이 등을 통과해야 결승점에 다다를 수 있다. 참가비는 약 40만 원으로 전액 불우아웃돕기에 기부되고, 우승 상금은 고사하고 마실 물조차 제공되지 않지만 해마다 참가자들이 늘고 있다. 2011년부터는 한국에서도 개최될 예정이다.

●●● 미국의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 계단 오르기대회

몇 층 되지도 않는 아파트도 걸어서 오르려면 급세 숨이 차는데, 102층, 381m 높이의 고층빌딩을 그것도 뛰어서 올라간다면 얼마나 힘이 들까. 뉴욕 로드러너스 클럽이 주관하는 미국 뉴욕 맨해튼의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 오르기대회에 참가해보면 답을 알 수 있다. 매년 2월 열리는 이 대회는 1층 로비부터 86층 전망대까지 총 1,576개의 계단을 올라가는 경기로 올해로 33년째를 맞았다. 웬만한 산을 등반하는 높이와 맞먹는다. 2010년 우승자는 독일 출신의 토마스 돌드로 10분 16초 만에 빌딩을 올랐고 최고기록은 호주의 폴 크레이크가 2003년에 세운 9분 33초다.

되는 거 아냐?

PLUS 가을 · 겨울에 열리는 마라톤대회

양산 전국하프마라톤대회

날짜 2010년 11월 7일 ● 코스 하프, 10km, 5km(양산종합운동장-통도사 일원) ● 신청안내 선착순 5,000명 ● 문의 051-442-4439
www.ysrun.co.kr

원주 치악마라톤대회

날짜 2010년 11월 21일 ● 코스 풀코스, 하프, 10km, 5km(원주종합운동장 일원) ● 신청안내 2010년 11월 5일까지 ● 문의 02-489-4401
www.wonjumarathon.net

스포츠토토서울닷컴 2010 시즌마감 42.195레이스

날짜 2010년 11월 28일 ● 코스 풀코스, 하프, 10km, 구간 마라톤(관천관문체육공원, 양재천 일원) ● 신청안내 2010년 11월 16일까지 ● 문의 02-521-1704 www.42195race.com

고흥우주마라톤대회

날짜 2010년 11월 28일 ● 코스 풀코스, 하프, 10km, 5km(고흥공설운동장 일원) ● 신청안내 2010년 11월 5일까지 ● 문의 061-830-6000
www.goheungmarathon.co.kr

2010 전국마라톤협회 제주 4-Full대회

날짜 2010년 12월 3일~6일 ● 코스 풀코스 1회~4회(제주종합경기장 일원) ● 신청안내 2010년 11월 10일까지 ● 문의 042-638-1080
www.run1080.com

결식아동돕기 국민건강마라톤대회

날짜 2010년 12월 4일 ● 코스 풀코스, 하프, 10km, 5km(한강시민공원 여의도지구 일원) ● 신청안내 2010년 11월 27일까지 ● 문의 1566-4423 www.kmmaratho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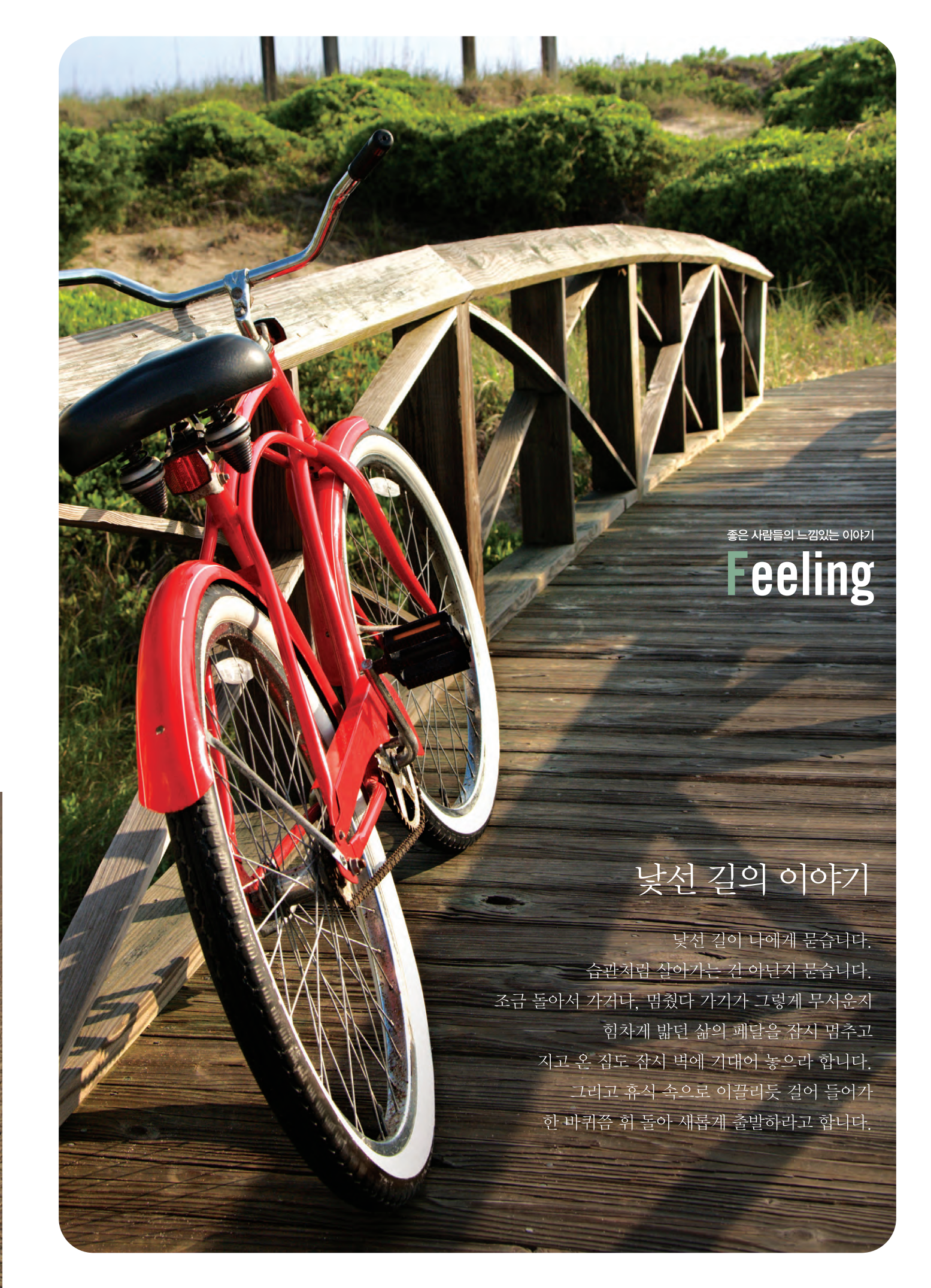
거가대교 개통기념 2010 국제 마라톤대회

날짜 2010년 12월 12일 ● 코스 풀코스, 30km, 13km, 5km(부산국제간 연결도로 대금휴게소 일원) ● 신청안내 각 종목 선착순 5,000명 ● 문의 080-560-7878 www.run1080.com

국민생활체육 전국 마라톤대회

날짜 2010년 12월 12일 ● 코스 하프, 10km, 5km(대구스타디움 일원) ● 신청안내 2010년 11월 22일까지 ● 문의 02-416-8474
www.runsportal.or.kr





좋은 사람들의 느낌있는 이야기

Feeling

낮선 길의 이야기

낮선 길이 나에게 묻습니다.
습관처럼 살아가는 건 아닌지 묻습니다.
조금 돌아서 가거나, 멈췄다 가기가 그렇게 무서운지
힘차게 밟던 삶의 페달을 잠시 멈추고
지고 온 짐도 잠시 벽에 기대어 놓으라 합니다.
그리고 휴식 속으로 이끌리듯 걸어 들어가
한 바퀴쯤 휘 돌아 새롭게 출발하라고 합니다.

하루 낮, 토막잠 같은 일탈

일탈이 필요한 두 남자가 있었다. 아침 일찍 서울역 앞에서 만난 두 사람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을 바다로 떠났다. 오해 마시라, 금지된 사랑의 도피는 아니다. 학생에서 사회인으로 급한 삶의 커브를 지나다 보니 잠시 피로했을 뿐. 삼척의 품에 깊이 안긴 두 사람은 낮잠처럼 짧지만 개운한 휴식을 즐겼다.

함께한 이들 유렵팀 박현준, 아태팀 이용원 사우





- 1 드라마 '인생은 아름다워'의 태섭과 경수 컨셉으로 사진찍기
- 2~3 삼척항의 작은 식당에서 성게알 비빔밥으로 든든한 점심
- 4 해녀 할머니들이 직접 따온 성게알을 뜨끈한 밥과 비벼 먹는 삼척별미

우선 밥부터 먹고 합시다

만약 일기후보가 있다면 이날 강원도의 날씨를 이렇게 설명하고 싶다. 한 고개 넘으면 '비', 또 한 고개 넘으면 '해'의 무한 반복이었다고. 마치 "이것이 중생들의 인생사니 잘 보아두어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늘은 인정사정없이 번덕을 부려댔다. 앞치락뒤치락하는 창밖 날씨를 바라보는 박준현 사우와 이용원 사우. 입사 동기예다가 같은 해외 영업팀을 맡고 있어 자연스레 친해질 수밖에 없었던 두 사람은 날씨 걱정을 잊으려는 듯 내내 동기들 근황이며, 여행이야기를 도란도란 나누었다.

악천후를 뚫고 기어이 삼척에 이르니 두 남자를 가장 먼저 반긴 것은 다름 아닌 허기. 삼척구경도 식후정이다. 꽃다운 28세인 두 사람이야 무엇이든 소화시킬 테지만 모처럼 바닷가에 왔으니 발품을 들여 별미를 찾아갔다.

우연히 들렀던 사람들의 입소문이 퍼져 유명해진 삼척항의 작은 식당. 유명세보다 소박하기 그지없는 외양이 오히려 더 믿음이 가는 곳이었다. 최고 인기 메뉴는 성게알비빔밥 정식. 동네 해녀 할머니들이 직접 따온 싱싱한 성게알을 발라내 중지에 담아주는데,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에 성게알을 넣고 계란 노른자 한 알을 깨뜨려 넣는다.



거기에 참기름을 두르고 깨소금을 뿌려 비벼 먹는데, 한입 맛을 보면 '삼척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 윤기가 잘잘 흐르는 비빔밥은 그냥 먹어도 부족함이 없지만 맨 김에 싸먹으면 더 감칠맛이 난다. 가리는 것 없이 다 잘 먹는다는 두 사람은 성게알비빔밥과는 초면이나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배가 부를 만큼 맛있게 그릇을 비워나갔다.

해외 영업을 지망하는 사람들 대부분 역마살이 있다고 할 만큼 활동적이라서 두 사람도 여행이며 식도락에 관심이 많은 듯했다. 아직 새내기 사회인이라 여유가 없지만 이런 작고 실속 있는 맛집을 찾아다니는 것도 재밌을 것 같단다.





1

바다를 옆구리에 끼고 달리는 해양레일바이크

배부르게 먹었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놀 차례다. 정선이나 구례에 있다고 알려진 레일바이크가 삼척에도 있다. 더욱이 깊고 짙은 삼척의 바다를 옆구리에 끼고 달리는 국내에서는 유일한 해양레일바이크. 해송이 우거진 숲길을 지나, 손에 닿을 듯 가깝게 펼쳐진 해변을 달리는 코스는 직접 달려보라는 말 외에 모두 사족일 뿐이다. 또 중간 중간 나오는 환상적인 루미나리에 동굴이 심심할 틈을 주지 않아 한 시간이 넘는 거리가 아쉬울 정도다.

레일바이크에 사이좋게 앉은 박현준 사우와 이용원 사우. 주변을 둘러보니 다들 가족 아니면 연인뿐이라 유난히 튀는 남남커플이다. 둘 다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속으로는 '여자 친구랑 올걸 그랬어~ 여자 친구랑 올걸 그랬어~' 라고 생각하진 않았을까. 출발 신호와 함께 바람처럼 페달을 밟는 남남커플. 그나마 마주 오는 여행객들과 손을 흔들어 인사하며 아쉬움을 달랬다.

수십 대의 레일바이크가 줄줄이 출발하지만 좋은 경치를 만나면 속도를 줄여 풍경을 즐길 수 있다. 또 중간에는 휴게소도 있어 다리심을 하고 간식으로 에너지를 보충하기도 한다. 레일바이크가 쉬는 동안, 두 사람에게도 그들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는지 물었다.

“여행을 좋아해요. 대학 시절 여기저기 돌아다녔어요. 중국에서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하고 3개월간은 중국 이곳저곳을 떠돌듯 여행했어요. 소수민족의 문화가 살아 있는 운남성은 꼭 다시 가 보고 싶은데 벵센 타이어는 중국지사와 공장이 있으니 앞으로 기회가 자주 찾아오겠죠.”



2

1~2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며 한 시간 코스를 달린 두 사람
3~4 '삼척, 그리고 가을 남자'의 두 주인공다운 멋진 뒤태. 싸늘한 가을의 날씨도 잊은 채 먼 바다를 바라보고 있다.



이용원 사우가 일본 대학생들과 대마도에서 바다청소 봉사활동을 하고, 어학연수 겸 동남아시아를 여행하는

등 일거양득의 여행을 즐긴다면 박현준 사우는 레포츠로 짧지만 강렬한 휴식을 하는 편이다.

“대학 시절 우연히 패러글라이딩을 즐기는 사람들을 보고 동호회를 찾아갔어요. 무언가 새로운 걸 해 보고 싶다는 욕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단양 활공장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이 매우 아름다워요. 짜릿하면서도 황홀한 순간이죠. 다음엔 더 완전한 자유와 스릴을 느낄 수있는 스카이다이빙에 도전하고 싶어요.”

요즘은 점점 맡겨지는 일이 늘어 여행이나 레포츠를 즐길 여유가 별로 없단다. 그래도 영업팀이 바쁠수록 회사가 성장한다는 의미가 때문에 기분 좋은 피로감을 느낀다니 영광없는 모범생들이다.



바다 쪽으로 한 뼘 더

보는 것으로는 부족해 발을 벗고 나섰다. 레일바이크를 탄 용화역에서 멀지 않은 맹방해수욕장. 초가을의 바다는 아직 포근했다. 모래는 단단해서 예쁜 발자국만 남긴 채 붙잡지 않았고, 파랗게 비치는 바닷물은 마셔도 짜지 않을 것만 같았다.

바지를 걷고 물가로 내려선 박현준 사우와 이용원 사우.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해안선을 산책했다. 연인과 함께 걸어도 좋았겠지만 가을의 바다는 두 남자에게 더 어울리는 것 같았다.

지금 가장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다. 뜻밖에 서울 사무실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을 선배들이 생각난다고 했다. 담당 지역은 다르지만 해외영업을 맡고 있는 이들 모두 유대가 좋아 회사가 즐겁다는 그들. 특히 때론 다정하게, 때론 힘 있게 이끄는 리더십이나, 꾸준히 공부하며 자신의 한계를 넓혀가는 선배들의 모습은 꼭 닮고 싶다고 했다.

힘든 일도 좋은 일도 삼척의 파도처럼 쉽 없이 밀려오고 밀려간다. 일상이 레일바이크처럼 수월하게 완급조절을 할 수 있거나, 때로 휴게소에서 쉬어갈 수 있다면 일탈이란 말이 그토록 짜릿하진 않을 텐데. 짧은 휴식을 즐기고 돌아가는 길, 두 사람은 아이처럼 깊은 잠에 빠졌다.

입사 후 지난 일 년간 새로운 삶에 적응하느라 긴장을 풀지 못했던 두 사회초년병은 이날 삼척의 품에서 어떤 꿈을 꾸었을까. 아이처럼 웃다가도 어느새 다시 어른이 되어 눈을 반짝이던 그날처럼 매일 조금씩 더 능숙하고 유연해지는 일상을 그려놓았을 것 같다. ㉞

딸꾹, 가을에 취해 적은 글 만추^{晩秋}백일장

사랑하는 나의 미경씨 송해원(전략기획팀 과장)

참 오랜만에 당신에게 글을 쓰려고 하니 기분이 참 묘하다.

가슴 두근거리던 시절의 감성과 오래써서 무뎠던 연필처럼 익숙해진 느낌과 내가 글을 휘적는 거 같아.

문득 달력을 보니 올해도 이제서야 달밖에 안 남았더라고. 내년이면 벌써 우리도 마흔 언저리에 다가가기.

세월이 정말 빨리 간다. 그치?

난 아직도 스물여덟의 상상했던 젊은 청년의 맘인데, 시간은 벌써 이렇게나 지나가 버렸어.

하긴 우리 등현이가 벌써 초등학교 3학년이네 애들 크는 재미에 시간이 빠르게 흘렀는지도 모르지.

누군가에게 자신의 맘을 글로 담자 전한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거 같아. 그것도 매일 눈뜨면 볼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부지 편더 그럭. 이렇게 어려운 일인 줄 알았으면 선뜻 펜을 들지는 못했을 거야.

그래도 내 손은 계속 뭔가를 쓰려고 그래. 그게 아마도 그동안 십여 년을 같이 살아오면서 차마 말로는 못하고,

가슴에 담아두고만 있었던 당신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기 때문일 거야.

사랑하는 미경씨, 어느 노래의 가사처럼 때론 친구이기도 하고, 때론 연인이기도 하며,

때론 조언자로 나의 옆에서 언제나 함께해주신 당신이 정말 정말 고마워.

언제나 내 지갑속에 넣어 두는 조금은 바라고 남아서 사랑할까 조심조심 다룬 편지를 지금 다시 꺼내봤어.

8년 전 결혼 기념일에 너에게 보낸 그 편지 말이야.

“우리 앞으로 50년 동안은 고운 정만 들도록 노력하자. 나의 부족한 면은 당신이 채우고, 당신의 부족한 면은 내가 채우고.

우리 아이들에게 현명한 부모가 되도록...”

당신이 내게 보낸 자지만 소중한 이 글을 꺼내어 볼 때마다 당신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

늘 당신에게 부족하고 모자라나지만, 당신을 사랑하는 이 마음은 세상의 무엇보다 더 크고 단단할 거야.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 언제나 함께하지 못해서 당신과 아이들에게 미안하지만

언젠가는 예전처럼 다시 함께할 수 있으리라 믿고 있어.

사랑하는 우리 등현이, 지현이를 이렇게 건강하고 멋지게 키워 준 당신.

난 언제나 당신 무릎에 누워 이야기하는 게 가장 행복한 당신의 반쪽이고 싶다. 사랑해.

2010년 눈이 시리도록 파란 어느 가을 날에

홀려 마음을 뒤집어 놓고 가는 바람과 헤어날 수 없이 깊은 하늘. 무엇이든 끼적거리지 않고 배길 수 없는 계절, 가을입니다. 울적 쏟아낸 글 한토막 혼자 보기 아쉬운 분들을 위해 <헬로우 넥센>이 간 명석. 넥센타이어 사주와 독자들의 멋진 글들이 가득 펼쳐졌습니다.



사랑 강유리(독자)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믿는 것입니다.

그의 말을, 그의 모습을,
그의 마음을, 그의 사랑을,
그의 모든 것을.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가 가는 곳을, 그가 하는 것을,
그의 생각을, 그의 의견을,
그의 모든 것을.

누군가를 따른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나의 희생을, 나의 기쁨을,
나의 열정을, 나의 사랑을,
나의 모든 것을.

누군가에게 준다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 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고집을, 나의 시간을,
나의 자유를, 나의 휴식을,
나의 모든 것을.

그러나 내가 그를 위해
버림으로써 나의 빈 곳은 또 다시
채워집니다.

그의 사랑으로,
그의 믿음으로,
그의 따름으로,
그의 줌으로,
그의 버림으로,

그의 모든 것으로.



내 마음속의 사람 유진숙(독자)

내 작은 마음안에
언제나 조용히 머무는 사람

고운 당신
기쁨의 미소를 지을 때나
내 영혼이 지칠 때나
조용히 말없이 침묵이라도
마음의 향기로 전하는 그대의 사랑

고운 눈빛으로
한층 더 성숙한 아름다운 삶으로 이끄는
맑은 아침햇살 같은 사람

볼 수 없어도
열린 마음으로
따스함을 전할 줄 아는 당신

좁은 오솔길에서
넓은 숲으로 인도하는
인생의 동반자
그대는 내 마음속의 연인 같은 당신입니다.

가을 운동회 이선기(독자)

높다란 국기게양대를 꼭짓점으로 운동장을 덮은 만국기가 펄럭인다. 국밥 아주머니도 장사를 나오고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 어린이, 강아지까지 모두 다 학교로 모여 동네가 텅텅 비었다.

광목으로 만든 어설픈 천막이 본부석이다. 그곳에는 교장선생님을 비롯하여 면의 유지들이 자리를 잡는데, 천막앞에 주렁주렁 매달린 금일봉이 그들의 신분을 말해주고 있다. “청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 아이들의 응원 소리가 요란하다. 점수판에 청군, 백군 점수가 올라가면 함성이 동네에 가득하다.

하학년 달리기, 고학년 달리기, 과자 따먹기가 진행될수록 아이들도 어른들도 흥에 겹친다. 이쯤 되면 동네 아주머니, 아저씨도 자리를 지키기 어렵다. 음악에 맞추어 율동을 하는 아이를 따라 어깨를 들썩거리기도 하고 달리다 넘어진 아이를 보고는 안타까운 탄성을 지른다.

운동회의 오전 마지막 프로그램은 오래 점심시간을 알리는 바구니 터뜨리기 게임이었다. 이 경기도 청·백으로 나누어 좁쌀을 넣어 만든 오재미를 들고 ‘와~’ 소리치며 금방 바구니를 터뜨렸다.

온 가족이 포플러 나무 아래 모여 먹는 점심이라야 차기름에 소금을 뿌린 김밥이 전부지만 소풍과 운동회 때만 맛보는 별식이다. 밥과 고구마까지 먹고 나면 10원씩을 얻어서 군것질에 나선다. 눈깔사탕과 차츰살떡이 유혹하지만 아이스케이크를 찾아서 여기저기를 돌아다닌다. 그것도 새것은 한두 개라 사지 못하고, 거의 녹아버려 손잡이에 조금이나마 붙어서 딸이 판매하는 것을 산다. 동생들과 나누고 친구에게 인심 쓰면서 자랑하려면 그게 안성맞춤이다. 배도 부르고 가을 하늘도 드높다. 삼삼오오 휴식을 즐기던 아이들이 선생님의 구령에 따라 운동회의 2막을 알리면 이전보다 더 힘찬 목소리로 응원이 시작된다.

“백군 이겨라”를 외치는 백군 응원에 질세라 “청군 이겨라”가 메아리처럼 운동장을 울리고 손님 찾아달리기 경주가 시작된다. 내가 뽕은 쪽지에는 ‘경차, 저씨’가 적혀 있었는데 본부석에 계신 지서주임에게 매달려 달렸더니 팔뚝이 등이라는 파란도장이 켜졌다. 약한 몸에도가 운동신경까지 둔한 내겐 도전이 윤이 좋아 처음으로 상을 탄 것이다. 이제 남은 경기는 줄다리기와 이어달리기다. 힘 좋은 고학년들은 앞줄과 뒷줄에서 고 저학년 아이들은 형과 누나 사이에서 힘을 다한다. ‘영차, 영차’ 구령에 맞춰 힘을 넣으면 없던 힘도 생기는 지양팀의 줄이 팽팽해진다. 밀고 당기는 사이에 시간은 흐르고 호르라기 소리가 들리다가 무섭게 이긴 편 아이들은 줄을 놓고 함성을 지른다. 줄다리를 끝으로 백군과 청군의 경기는 끝이 났다.

이어달리기는 동별이다. 동별로 아저씨, 아주머니가 두 분씩 나오게 되는데 응원이 기본이다. 아이들도 동별로 모이고 아이에서 노인까지 목이 터진다. 이 경기에 참가한 선수들의 손짓, 발짓은 힘차다. 잠시라도 긴장을 늦추면 뒤에서 쫓아오는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기 겁상이다. 온 힘을 다해 뛰는 선수도, 목이 터져라 응원하는 사람도 사력을 다하기는 마찬가지. 드디어 마지막 주자, 두터진 아저씨도 앞서가는 아주머니도 있는 힘을 다해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고 테이프를 끊은 선수 뒤로 함성이 터지면 가을 운동회는 막을 내린다.

그 옛날 가을 운동회는 동네 사람들도, 아이들도 함께 되 마을 잔치 한마당이었다. 많은 시간이 흐른 지금, 흥겹고 정겨웠던 어린 시절이 새삼 그리워진다.





은서야, 두부 만들러 가자

“딸랑 딸랑” 종을 흔들어 따끈한 두부가 나왔음을 알리는 두부아저씨가 있었다. 김이 식기 전에 신김치에 싸먹는 재미를 알게 되면 종소리만 들어도 저절로 군침이 돌았다. 이젠 사라져버린 그 고소한 재미를 찾아 떠난 양산 배내골 여행. PCR파트 윤상철 사우와 그의 아내 송현주 씨, 그리고 귀여운 은서가 동행했다.

함께한 이들 PCR파트 윤상철 사우 가족

배내골 야생 리얼 버라이어티

두부 만들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다섯 살 은서는 신이 났다. 체험장이 있는 이춘열 씨네 마당 구석구석에는 온갖 동물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동물농장이라는 노래를 현실로 꾸며놓은 듯 화단 위에는 고양이, 장독대에는 강아지가 살고 있었고, 나무 사이 벌통에서는 꿀벌이, 그 옆에는 오순도순 토끼 가족이, 외양간에서는 누렁소가, 풀밭에는 닭이, 울타리 사이에는 칠면조가 알을 품고 있었다. 평소 동물을 키우고 싶다고 노래를 부른다는 은서에게 이만한 놀이터가 또 있을까. 신이 난 꼬마 아가씨는 발까지 동동 구르며 덩석덩석 끌어안고 쓰다듬으며 마당을 평정해 나갔다. 한번은 토끼 귀를 어찌나 야무지게 잡았는지 아무리 버둥거리도 놓치지 않으니 오히려 그 과감함에 엄마아빠가 더 놀랐을 정도. 결국 동물들과 더 놀겠다는 은서에게 칠면조 알을 하나 얻어주고서야 간신히 두부 만들기를 시작할 수 있었다.

두부를 완성하기까지 손이 많이 가더라도 배내골 장선휴(休)마을에서는 옛 방법을 최대한 지키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순서는 다음과 같다. 8시간 동안 불려놓은 콩을 맷돌에 곱게 갈고, 술에 넣어 끓인다. 잘 익은 콩물을 면 보자기에 옮겨 담아 짜내면 국물과 비지가 분리된다. 그 후 콩물에 간수를 넣어 단백질이 응고되기 시작하

면 그 자체가 순두부. 그것을 네모난 틀에 넣어 물기를 빼고 알맞게 식히면 모두부가 되는 것이다. 드디어 세 식구가 나란히 앉아 맷돌을 돌리기 시작했다. 윤상철 사우는 “은서가 어처구니를 돌려 두부를 만드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맷돌의 나무 손잡이 이름으로 아내와 아이에게 장난을 걸었다. 그럼에도 맷돌에 재미가 들린 은서는 아빠의 장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콩과 물까지 직접 넣어가며 엄마와 힘차게 콩을 갈았다.



두부보다 더 고소한 은서네 이야기

콩을 다 갈고 난 후에는 일사천리로 두부 만들기가 진행됐다. 힘을 쓰는 일은 아빠가, 솜씨가 필요한 일은 엄마가, 재밌는 일은 은서가 하는 완벽한 분업이 이루어졌다. 은서가 가장 즐거워했던 과정은 두유와 비지를 분리하는 과정. 콩물을 넣은 면 보자기의 입구를 쫄쫄 여민 뒤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하면 된다. 이제야 13kg이 됐다는 은서가 지렛대에 대롱대롱 매달려 알뜰하게 짜냈다. 이렇듯 더없이 다정해 보이는 세 식구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무려 2년이 넘게 떨어져 있었다는

것이 잘 믿기지 않는다. 은서가 3살 때 아빠 윤상철 사우는 중국공장으로 발령을 받아 현지에서 일하다가 올해 4월에 다시 양산공장으로 복귀했다. 고운 아내와 귀여운 딸을 두고 어찌 발길이 떨어졌을까 싶은데 잠시 다녀 오려고 했던 중국공장에 가보니 자리를 잡는 단계여서 교육인력이 꼭 필요했단다. 회사에도, 자신에게도 큰 전환점이 될 거라는 생각에 윤 사우는 아내 송현주 씨를 설득했고, 착한 아내는 곧 받아들였다.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지난 것 같아요. 물론 힘들 때도 있었죠. 한번은 유치원 재롱잔치에 아빠 대신 삼촌이 간 적이 있는데, 아무래도 은서는 영 서운했나봐요. 선생님께 부탁하기를 자기소개에 ‘아빠하고 살고 있습니다’ 라고 적어달라 그랬네요. 지금 생각해도 마음이 아프죠. 다행히 남편이 왔을 때 은서가 낯설어하지 않고 항상 같이 있던 것처럼 따라서 다행이었어요.”

이번 ‘패밀리가 떴다’에 참여한 것도 이런 윤상철 사위의 사정을 아는 파트사람들의 추천이 있었다. 오랜만에 가족과 오래 기억에 남을 추억을 만들기 바라는 마음이 모인 것. 하필이면 이날, 얼음골이라는 이곳의 별명이 무색할 정도로 늦더위가 기승을 부렸고, 은서는 두부 만들랴, 강아지와 고양이의 뒤를 쫓으랴 종일 땀방울을 뿜 어다니느라 얼굴이 까무잡잡해졌으니 다시 뽀얀 피부가 돌아올 때까지 쉽게 잊히지는 않을 것 같다.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두유에 간수를 넣어 응고시키고, 틀에 부어 어엿한 두부 모양을 갖춰갔다. 더운 날씨에 고 생했으니 이제는 즐거운 시간이 남았다. 두부 만드는 법을 지도해준 박진향 강사가 맛있게 익은 김치를 내오니 찰떡궁합 두부김치가 마련됐다. 인스턴트보다 김치, 두부처럼 슬로우 푸드를 좋아한다는 은서는 후다닥 먹고 다시 강아지를 찾아 나섰고, 다음은 부부의 촬영시간이 돌아왔다. 회사 동료의 소개로 만나 3년 연애 끝에 결혼 한 두 사람, 서로 “예쁘게 좀 해봐라”하며 애정 어린 구박을 하지만 두 번째 신혼을 맞이했으니 보기만 해도 저 절로 웃음이 나는가보다. 머지않아 강아지를 사달라고 조르는 은서에게 더 놀라운 선물을 줄 계획이란다. ㉞

배내골 팜스테이 체험
맑은 개울 옆으로 아생 배나무가
많이 자라 배내골(梨川洞)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경남 양산의 영취
산 자락에 숨듯이 자리해 맑은
계곡과 고운 산을 그대로 간직하
고 있다. 이곳 31개 농가는 도시
민을 위한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계절 내내 손
두부 만들기, 떡 만들기 등이 진
행된다. 도시의 빠르고 편리한
생활에만 익숙해진 아이들에게
천천히 사는 삶과 불편하지만 친
환경적인 생활에 대한 경험을 선
사할 수 있을 것이다.
www.baenaegol.com
055-363-9549



가을맞이 생필품 준비

번개분임조의

살림장만 퀴즈대회

선선한 바람과 낙엽이 코끝을 스치는 가을, 등불을 가까이하여 글 읽기에 좋은 계절이라고 했던가. <헬로우 넥센>이 익어가는 곡식처럼 상식도 여물어 갈 수 있는 퀴즈대회를 준비했다. 지식도 뽐내고, 생필품도 장만하는 깨알 같은 기회! 알쏭달쏭 왁자지껄했던 살림장만 퀴즈대회 속으로 들어가 보자.

정사장 vs 사오정

이번 '똑똑, 분임조 습격사건'의 주인공은 14명으로 구성된 2공장 공무원 전기파트의 번개분임조다. TPM 활동도, 사내 행사도, 운동도, 회식도 모두 번개처럼 빠르게 속전속결로 해결하는 스피드 분임조라 해서 번개분임조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물론 빠른 만큼 협동도, 활동성도 모두 우수한 분임조다.

사내 여기저기 수시로 발생하는 전기 관련 업무를 보느라 한자리에 모이기 힘든 이들에게 잠시 잠깐일지라도 함께 웃을 수 있는 시간을 선사하기 위해 휴게실로 급습한 <헬로우 넥센>. 라면, 딸기잼, 치약, 섬유유연제, 쌀, 휴지, 바디클렌저, 고추장 등 다양한 생필품을 상품으로 내걸고 '가을맞이 살림장만 퀴즈대회'를 시작했다.

먼저 단체전에서는 공정을 기하기 위해 박정술 분임조장이 심판을 맡았다. 팀을 짜는 시간도 아깝다며 앉은 순서대로 빠르게 좌우로 팀을 나누고 자칭타칭 각 팀의 에이스 정홍섭 사수와 민경식 사수의 별명을 따 한 쪽은 정사장팀, 한 쪽은 사오정팀으로 팀명까지 정했다.

단체전 1라운드는 '줄줄이 말해요'. 사회자가 문제를 내면, 먼저 구호를 외치는 팀이 순서대로 답을 하나씩 이야기하는 게임이다. 반짝이는 눈빛, 구호를 빨리 외치려 움찔움찔거리는 모습, 상대방의 입을 막는 견제 등 영락없는 개구쟁이들 같다.

첫 번째 문제는 넥센타이어 승용차용 타이어 제품의 모델명을 하나씩 답하기. '사오정!' '정사장!' 등 팀 이름이 마구 울려 퍼진다. 근소한 차이로 사오정팀에게 우선권이 주어졌다. 사오정 별명의 주인공 민경식





단체전 1라운드는 ‘줄줄이 말해요’.
반짝이는 눈빛, 구호를 빨리 외치려
움짤움짤거리는 모습,
상대편의 입을 막는 견제 등
영락없는 개구쟁이들 같다.



정홍섭, 신덕렬, 임현규, 박경술, 오현극, 임영진, 민경식 사우(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2라운드는
개인전인 복불복 퀴즈대회.
스포츠, 영화, 책, 역사, 넌센스 등
다양한 문제를 풀고,
상품은 복불복으로 가져가는 방식이다.
2라운드부터는 박정술 분임조장도
참가해 생필품을 건 7명의 브레인
싸움이 벌어졌다.



사우가 가볍게 N7000을, 임영진 사우가 N5000을 외쳤다. 문제가 너무
쉽다며 승리를 예상하고 웃는 두 사람. 그러나 마지막 오현극 조장이
자신 있게 외친 답은 민경식 사우가 답했던 'N7000'. 짹째 기회를
가져가는 정사장팀. 정홍섭 사우가 N3000을, 신덕열 사우가 N7000
을, 임현규 사우가 N5000을 순서대로 답하며 짜릿한 첫 승을 가져간
다. 단체전 첫 번째 선물은 라면 번들. 일용할 양식을 얻었다며 정사장
팀은 싱글벙글이지만 어이없게 기회를 놓친 사오정팀은 안타까움에 입
맛만 다실 뿐이다.

“미안하다. 내가 N3000이라고 들었다. 아이고. 다 이긴 건데 아쉽다.
다음엔 잘 할게”하며 분발을 약속하는 오현극 조장. 하지만 추석 차례상
에 올리는 음식 이름을 대는 문제에서 우렁차게 ‘돼지고기’라고 외친
민경식 사우 덕에 오현극 조장은 분발은 커녕 기회도 얻지 못했다. 이어
지는 세 번째 문제는 동물이 들어간 속담 말하기다. 이번에도 구호는 사
오정팀이 빨랐다.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소.
소, 소...소!!” 말문이 막힌 오현극 조장. 안타깝게도 박정술 분임조장이
“타입아웃!”을 외친다. 그러나 정사장팀 임현규 사우의 실수로 기회가
다시 돌아왔다. 이번엔 오현극 조장도 “쥐구멍에도 별빛 날이 있다”라
는 속담을 휴게실이 떠나가라 외치며 실추됐던 명예회복에 성공했다.

복불복 브레인 싸움

2라운드는 개인전인 복불복 퀴즈대회. 스포츠, 영화, 책, 역사, 넌센스
등 다양한 문제를 풀고, 상품은 복불복으로 가져가는 순서다. 2라운드

부터는 박경술 분임조장도 참가해 생필품을 건 7명의 브레인 싸움이 벌어졌다.

첫 번째 문제는 스포츠 분야로 지메시라는 별명을 얻은 여자축구대표팀 선수의 이름을 맞추는 문제다. 정확한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지 긴가민가한 눈빛으로 서로서로 눈치만 본다. 서비스로 제공된 객관식 문항, ‘① 지아영 ② 지소영 ③ 지소연 ④ 지송연’을 읊자 빠르게 뿔망치로 모여드는 손들. 분임조장의 손이 가장 빨랐다. 뿔망치를 내려치며 “지소연!”을 외친 분임조장. 땡땡! 고추장 당첨이다. 이어지는 야구 문제와 영화감독 문제도 박경술 분임조장이 휩쓰는 걸 보니 1라운드에서 심판을 보느라 선물을 못 탄 것이 내심 아쉬웠던 모양이다.

이어지는 문제에서는 신덕열 사우의 독주가 이어졌다. 최초의 한글소설 홍길동전을 맞추는 것을 시작으로 상품 획득에 박차를 가하는 신덕열 사우. 평소 다들 낮잠에 빠지는 점심시간에도 독서삼매경에 빠진다는 독서광의 힘이다. 넌센스도 척척이다. 세상에서 가장 폭력배가 많은 나라와 도둑이 가장 싫어하는 아이스크림인 칠레와 누가바를 연이어 맞추며 다들 침 발라둔 상품인 휴지와 쌀까지 가져갔다.

드디어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도 넌센스다. 세상에서 가장 빨리 자는 가수는? 하지만 이번엔 분임조원들 모두가 전혀 감을 잡지 못하는 눈치. 도저히 답이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자 사회자가 내놓은 힌트는 ‘흑산도 아가씨’. 순간 정답을 눈치챈 듯 눈이 빛나는 분임조원들. 그런데 보아하니 분임조 막내인 민경식 사우에게 마지막 퀴즈 당첨의 영광을 주기로 한 모양이다. 그런데 정작 민경식 사우는 정답을 모르는 모양이다. 한참을 답답해하던 분임조원들이 “이~, “이미~” 라며 직접적인 힌트를 건네고 나서야 “아~ 이미자?” 라고 민경식 사우가 답하고, 가을맞이 살림장만 퀴즈대회의 막도 내렸다.

“다음에는 좀 더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오세요. 난이도가 너무 낮은 거 아니에요?”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아유, 저것도 못하냐’ 했는데 막상 해보니 어렵네요. 머릿속에 정답은 맴도는데 입 밖으로 나오질 않더라고요.”

자신들의 상식을 유감없이 자랑하고 가족을 위한 생필품까지 얻을 수 있어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뒀다며 즐거워하는 번개분임조원들. 다만, 뒤늦게 휴가를 간 동료들과 근무시간대가 다른 분임조원들 때문에 인원의 절반인 7명만 참여하게 되어 아쉽다며 받은 선물은 오지 못한 분임조원들과도 나누겠다고. 촬영 막바지, 업무 시간이 맞지 않아 뒤늦게 휴게실로 들어온 김정주, 김청옥, 주용환 세 사우는 함께 하지 못한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출근 날이 아님에도, 출근 시간대가 아님에도 분임조의 행사를 위해 늦게라도 찾아오는 이들의 애정이 번개분임조가 빠르게 성장하는 원동력이 아닐까. ㉒





카젠 권정수 대표



목포지점 박명석 사우



목포에 슈퍼 히어로가 떴다!

여기, 두 명의 슈퍼 히어로가 있다. 한 사람은 평범한 듯 보이나 가슴에 열정의 'S'자를 품은 '슈퍼맨', 또 다른 이는 젊음의 패기를 쌍절곤 삼아 휘두르는 '이소룡'이다. 일에서도, 사랑에서도 그리고 우정에서도 하나같이 뜨거운 진심으로 임하는 카젠 권정수 대표와 목포지점 박명석 사우. 그들의 '뜨거운' 스토리를 공개한다.

함께한 이들 카젠 권정수 대표, 목포지점 박명석 사우

뜨거운 형제들

박명석 사우와 함께 카젠에 들어서자, 권정수 대표가 환한 미소로 반긴다. 일정상 한창 바쁜 시간에 찾아가게 되어 미안한 마음이 앞섰는데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다며 점심은 먹었느냐며 챙기는 권정수 대표. 오는 내내 박명석 사우가 칭찬한 카젠 권정수 대표의 '스마일 친절마인드'를 실감하는 순간이다.

“저는 사실 카 엔지니어 출신으로 타이어 업계에 입문한 건 5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카젠을 오픈한 지 이제 4년이 다 되어 가는데 명석 씨가 벡센타이어에 입사하기 한 달 전에 문을 연 셈이죠. 명석 씨가 개설만 안 했지 카젠 오픈 이후 지금까지 성장과정을 함께했다고 해도 무방해요. 서로 시작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무언가를 이뤄보겠다는 의지와 패기가 대단했고 그래서 더욱 잘 통했어요. 기본적으로 명석 씨는 ‘좀 힘들겠는데요’라고 말하지 않아요. ‘해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한 후 정말 노력하는 타입이라, 이 친구와 끝까지 가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들어요.”

입사 4년 차에 들어선 박명석 사우의 영업 시크릿은 ‘친밀함’. 만나자마자 영업 이야기만 하면 상대방이 부담을 갖기 쉽다. 자주 만나 이야기하며 친분을 쌓다 보면 일 이야기도 저절로 나누게 되고 결국 소중한 인연으로 다가설 수 있다는 생각이다.

“처음엔 카젠에 매일 들락거리며 권정수 대표님 일하시는 것도 보고, 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들었어요. 계속 그렇게 지켜보며 배우다 보니 현장에서 타이어가 어떻게 팔리고 또 소비자는 무얼 궁금해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권정수 대표님도 그런 저의 의지를 높게 사주셨고 알고 보니 고등학교 선후배이기도 해서 더 빨리 가가 위질 수 있었죠.”

이제는 서로 형, 동생이라 부르는 두 사람은 권정수 대표의 표현을 그대로 옮겨 ‘밥 숟가락 개수까지 아는’ 사이가 되었다. 두 가족이 수시로 만나 밥도 먹고 가족 소풍도 같이 간다는 것. 사실 오늘도 두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기로 했는데 바로 권정수 대표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함이라고. 친동기간도 생일을 챙기기 쉽지 않은 세상에 정말 ‘뜨거운 형제’인 셈이다.

슈퍼 히어로의 조건

본격적인 사진 촬영이 시작됐다. 권정수 대표는 슈퍼맨으로, 박명석 사우는 이소룡으로 분했는데 두 사람 모두 축구로 다져진 다부진 체격과 탄탄한 몸매를 자랑해 슈퍼 히어로와 참 잘 어울린다.

“권정수 대표님은 정말 슈퍼맨 같은 분이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언제나 웃는 얼굴로 사람을 편하게 맞아주시죠. 열정도 대단해서서

타이어 신제품이 나오면 꼭 본인이 먼저 확인하고 살펴보세요. 그러니 고객도 믿고 구매할 수 있는 거고요. 아까 가게 안에 베스트셀러와 최신 잡지들이 비치된 거 보셨죠? 손님들이 기다리실 때 읽으라고 준비하는 건데 매달 새 책으로 교체하세요. 대표님 본인도 틈틈이 자기계발과 경영관리에 대한 책을 열심히 읽으시고요. 곧 타이어테크 플러스 본점을 내려고 준비 중이신데 성공하리라 확신합니다.”

권정수 대표의 개인 촬영을 지켜보며 박명석 사우가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인다. 이어서 박명석 사우의 촬영이 시작됐다. 촬영을 위해 생전 처음으로 ‘민소매 티셔츠’를 입었다는 그는 약간 쑥스러움을 타는 듯하더니 이내 카메라를 향해 도전적인 눈빛을 선보인다. 어쩌면 영업은 세상이란 링에 홀로 오르는 것과 같을지 모른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벡센타이어 홍보 동영상을 바로 보여주기 위해 휴대 전화를 스마트폰으로 바꾸고, 매달 각종 자료를 꼼꼼히 업그레이드해 모두 가지고 다닌다는 박명석 사우. 영화 속에서 악당을 맞아 싸우는 이소룡처럼 그도 매일 자신의 한계를 넘어 세상에 맞서고 있다.

“바쁘게 지내다 보니 가끔은 지치기도 하고 힘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권정수 대표님과 저는 서로 ‘가족’ 이야기를 많이 해요. 남자가 일어서고 또 달릴 수 있는 동력은 바로 가족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인 것 같아요.”

거칠 것 없는 열정과 패기, 그리고 가족에 대한 사랑까지 똑 닮은 두 사람. 앞으로 그들이 함께 써 내려갈 성공 스토리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다. ㉞



타이어테크 군산 수송점

실력에 서비스를 곱해야 당당해집니다

곱하기에서 1이라는 숫자는 어떤 큰 수에 곱해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인간사에서 이 공식의 정답은 다르다. 많은 사람들이 1과 1을 곱해 제자리가 아닌 그 이상으로 성과를 내고 있으니 말이다. 타 지역과 군산시를 잇는 도로이자 왕복 8차선으로 시원스럽게 뚫린 남북로사거리에 자리 잡은 타이어테크 군산 수송점 신창욱 대표도 그 사실을 매우 잘 알고 있다.

“고객이 물건을 사가면서 최소한 욕은 하지 말게 해야 되잖아요. 고객에게 신뢰를 주는 게 중요한데 어느 하나가 아니라 고객이 들어올 때 인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상품, 작업, 계산하고 다시 나갈 때까지 모든 과정에서 다 잘해야 가능한 거죠.”

단순히 하나에 하나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매장 안에서 이뤄지는 모든 일이 서로 융화가 되어야 최상의 결과를 낳고 고객이 만족한다는 것. 말을 물가까지 데려갈 순 있지만 물을 먹는 건 말 마음이듯, 손님의 마음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설득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그러기 위해 타이어는 기본이고 자동차와 관련된 지식과 실력까지 갖추어야 당당해질 수 있단다.

“타이어를 추천해주는 건 당연하고 이상이 생겼을 때 타이어 문제인지, 차가 이상한지 구별할 줄 알아야 ‘이만저만해서 이상합니다’ 하고 고객을 설득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다른 액세서리는 고장 나면 그냥 안 쓰고 말아도 되지만 타이어는 만에 하나 잘못 작업해 실수하거나 고장난 채로 그냥 달렸다면 바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일이라 늘 긴장하고 작업해야 되죠.”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중요하기에 양심껏 일해 고객에게 신뢰를 주면 강요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판매로 이어진다고 믿는 신창욱 대표. 이곳에 자리 잡은 지 이제 만 1년이 지났지만 그의 믿음이 바뀌지 않는 한 그를 찾는 사람들은 두 배, 세 배 계속 늘어갈 것이다. 곱하기의 배수처럼. ④

타이어테크 군산 수송점 | 전북 군산시 수송동 50-28 Tel 063-462-5989

알면 알수록 놀라운 세상 속으로

Jumping

그런 날씨, 그런 요즘

빨랫줄에서도 가을을 만납니다.

숨씨 좋은 어머니께서 빨아 너신 이불호청처럼

어느 인적 드문 바닷가의 말간 물결처럼

가슴이 후련해지는 풍경.

가끔은 세상을 뒤집어 놓고선

빨랫줄에 하늘이 걸렸다 우겨보고 싶은

그런 날씨, 그런 요즘입니다.



양양 광염소나타 울려 퍼지는 가을의 첫 정거장

“그만 네 자리를 나에게 내어주렴.” 떠남이 아쉬워 서성이는 여름에게 성큼성큼 다가온 가을이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여름은 말없이 사방을 둘러보더니 숲에서 진록의 색깔을 거둬들였다. 순식간이었다. 여름이 자취를 감춘 것은. 그리고 또한 순식간이었다. 가을이 점령군처럼 들어앉은 것은.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보니 시나브로 숲은 붉게 물들어 있었다. 봄은 남으로 오고, 가을은 북으로 온다. 가을이 가장 먼저 열리는 곳 강원도. 그 중 서럽도록 붉은 단풍의 설악을 품고, 그 자락마다 고운 풍경 간직한 양양이 이번 우리의 목적지다. 다들 배낭을 꾸리자. 그리고 떠나자. 찬란한 가을의 북판으로.



**06:00 운해에 잠긴 구룡령**

양양의 가을로 들어서는 길은 새벽 도착을 목적으로 한다. 그 이유는 운해 때문이다. 양양의 관문 중 하나인 구룡령(九龍嶺)의 가을은 운해 속에서 허우적댄다. 구룡령은 해발 1,089m의 고개로 강원도 홍천군 내면 명개리와 양양군 서면 갈천리에 걸쳐 있다. 아홉 마리 용이 쉬어간 고개라 해서 구룡령이다. 본래 이름은 구운령(狗雲嶺)이다. 명개리 처녀를 보쌌다고 도망치던 갈천리 총각이 구름의 늪에 빠져 해마다 개의 도움을 받아서 길을 찾고 사랑을 이루었다는 데서 유래한 이름이라고 한다.

홍천에서 양양으로 빠지는 56번국도를 타고 구룡령을 넘는다. 구불구불 이어지며 고갯마루로 오르는 길이다. 해발고도가 차츰 올라가면서 구름이 한 조각씩 차창을 스치더니 어느샌가 자동차는 구름 속에 잠긴다. 조심스럽게 길을 저어가다 보면 어느덧 구룡령 정상. 오른쪽으로 약수산, 왼쪽으로 갈천곡봉이 구름 위로 머리만 빼죽 내밀고 있다. 구룡령을 지나는 길은 찾길만이 아니다. 아주 멋진 옛길이 여기 있다.

**새벽의
양양을 깨우다**

2007년 12월 대한민국 명승 제29호로 지정된 길이다. 56번국도가 놓이기 전까지 사람들이 줄곧 이용하던 길이다. 구룡령휴게소가 옛길 출발점이다. 건너편으로 등산로가 있다. 이 길을 따라 1.2km 약 30분쯤 걸으면 갈림길이 나오는데, 왼쪽이 명개리 오른쪽이 갈천리 방면이다. 둘 다 내리막길로 걷는데 부침이 없다. 명개리까지는 3.5km, 갈천리까지는 2.7km 거리다. 갈천리로 내려가는 길에 회돌(석회암)이 나왔던 횃돌반쟁이, 소나무가 우거진 솔반쟁이, 조선시대 양양 고을을 너무도 사랑했던 한 청년이 죽어 묘를 썼다는 묘반쟁이 등을 지난다. 단풍은 들어 설레고 낙엽은 쌓여 낭만 넘치는 옛길이다.

구룡령 옛길을 걷더라도 자동차가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면 정상이 아니라 갈천리에서 출발하는 것이 좋다. 옛길 정상에 오른 후 백두대간 줄기를 타고 조금 걷다가 갈천약수터로 방면으로 하산하는 방법이다. 약 5시간이 필요하다. 갈천약수는 철, 나트륨, 칼슘, 마그네슘 등을 다량 함유한 것으로 유명하다.



2



3



4

13:00 '보물숲' 미천골자연휴양림

갈천리에서 양양읍 쪽으로 조금 내려가다 보면 곧 미천골자연휴양림이다. 자동차로 10분이 채 걸리지 않는다. 폭포와 계곡, 단풍과 보물이 볼거리를 제공하는 아름다운 곳이다. 미천골은 약수산(1,306m)과 응복산(1,359m)의 사이의 7km에 달하는 계곡이다. 그 주변이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돼 있다. 계곡을 따라 임도가 나 있는데 차량 통행이 가능하다.

입구에서부터 약 800m쯤 가면 왼쪽에 선림원지가 있다. 오래된 절터로 선림원은 통일신라시대인 804년경 창건되어 홍각선사가 번창시킨 절이다. 당대 최고 수준의 선수련원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10세기를 전후해 홍수와 산사태로 매몰되었다. 절은 사라지고 없지만, 현재 이곳에는 아직까지도 석등, 홍각선사탑비, 부도, 삼층석탑 등의 보물이 남아 있다.

선림원지를 지나서 길을 가다 보면 멋진 폭포들이 줄줄이 나타난다. 주변의 여러 샘에서 흘러나온 물줄기가 폭포를 이룬 큰샘실폭포, 임도가 끝나는 지점에

1 구룡령의 나무 지붕 사이로 파고드는 햇살

2 구룡령에 단풍이 곱게 들었다

3 무르익은 가을, 견고 싶은 미천골길

4 미천골의 붉은 단풍 사이로 보이는 한줄기 폭포

자리한 높이 70m의 상직폭포가 특히 인상적이다. 상직폭포 앞에는 정자까지 설치해 놓았는데, 바빠 가지 말고 느긋이 앉아서 단풍구경이나 제대로 하라는 뜻에서 만든 것 같다.

시원한 폭포 물줄기는 끊임없이 떨어져 계곡에 물을 보태고, 단풍은 그 물마저 붉게 들일 기세다. 속도를 낼 수도 없는 임도이기도 하지만, 위낙 풍광이 수려해 가다 서다 쉬다를 반복하다 보면 오후가 훌쩍이다.

18:00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양양 명물 '송이'

양양은 이름난 송이의 고장이다. 노송의 기운과 향을 오롯이 간직한 송이는 가을이 제철. 미천골자연휴양림에서 양양읍까지 간 후, 강릉 방면으로 남대천대교 건너자마자 좌측에 송이골(손양면 송현리 234-1, 033-672-8040)이 있다.

간이 세지 않아서 송이 특유의 향을 잘 살리는 집이다. 송이전골, 송이불고기, 송이영양돌솥밥, 송이소금구이가 주메뉴다.

07:00 단풍으로 마음 홀리는 흘림골

첫날보다는 여유롭지만 그래도 이른 출발을 고집하는 것은 그곳이 설악이기 때문이다. 단풍이 절정일 때의 설악은 나섭이 빠르면 빠를수록 사람 몸살을 앓지 않는다. 특히 주말이라면 더욱 그렇다.

흘림골은 지난 2006년 개방된 설악의 등산로다. 무려 20년 동안 자연휴식년제로 묶여 있던 곳이다. 한계령 근처다. 흘림골에서부터 시작하는 등산로는 등선대와 주전골을 거쳐 오색으로 뻗는다. 총 연장 6.2km의 거리다. 설령설령 걸어 4시간 거리다. 빠른 걸음이면 3시간이 채 걸리지 않는다. 처음 얼마간만 오르막이고 나머지는 거의 내리막에 평지다. 설악의 등산로 중에서 가장 편하게 단풍구경을 하는 곳이 흘림골 코스다. 오르막이라는 그 구간은 등선대까지다. 약 40분 거리다. 도중에 여심폭포를 지난다. 남설악의 진수를 보여주는 등선대는 높이 1,002m. 정상에 전망대가 설치돼 있다.

오른쪽으로 한계령과 서북주능선, 정면으로는 무수히 많은 기암들이 마치 죽순처럼 솟아 있는 만물상이 펼쳐진다. 기암 사이사이 붉은 꽃처럼 핀 단풍과 어우러져 냇을 잃게 만든다. 하산길은 약 5km다. 오색에 이르기까지 여러 폭포들이 모습을 드러낸다. 등선

설악 단풍나들이

대에서 약 20분 정도 아래에 등선폭포가 있고, 거기서 약 30분 정도 가면 십이폭포가 나온다. 용소폭포는 십이폭포에서 다시 20분 정도 더 걸어야 한다. 갈천약수처럼 다량의 철분이 함유된 오색약수 바로 위 쪽에는 성국사라는 조그마한 절이 하나 있다. 통일신라시대 절로 3층석탑이 남아 있다.

13:00 화마 지우는 낙산사

낙산사에 화마가 들이닥친 지 벌써 5년. 화마는 원통보전과 홍예문, 범종각, 무설전, 근행당 등 21동의 건물과 100만㎡(30만 평) 사찰림 가운데 3분의 2를 집어삼켰다. 다행히 낙산사는 빠르게 옛 모습을 되찾아가는 중이다. 물론 소나무들을 아낌스리로 키우려면 몇십 년은 더 기다려야겠지만, 낙산사는 의상대사가 관음보살의 계시를 받고 지은 절이다.

대사가 동해용왕으로부터 여의주를 받고 수도한 절벽 위에 세운 의상대는 낙산사 최고의 일출 전망대다. 홍련암에서 의상대를 배경 삼아 보는 일출도 기막히다. 홍련암은 관음보살이 바다에서 붉은 연꽃을 타고 솟아오른 자리 옆에 바닷가 암석굴 위에 지은 암자로 석모도 보문사, 남해 금산 보리암, 통천 금란굴과 함께 우리나라 4대 관음성지 중 하나에 속한다.





2



3



4

1 유명한 흘림골의 단풍

2 화마를 지워가는 낙산사의 일출

3 입으로 한 번 코로 한 번 즐기는 가을 양양의 별미, 송이

4 나무껍질을 인 굴피집

14:00 쉬고 또 쉬어가는 휴휴암

낙산사에서 강릉 방향으로 내려가다 보면 남애항 바로 직전에 휴휴암(休休庵)이 자리하고 있다. ‘쉬고 또 쉬어가는 암자’라는 뜻이다. 절의 역사는 짧다. 1997년 창건됐다. 이처럼 일천한 절이 주목받는 이유는 낙산사 못잖은 주변 풍광 때문이다. 기묘한 바위들이 모여 있는 해안 절벽 위에 세워진 절이 한 폭 그림이다. 휴휴암은 묘적전이라는 법당으로 출발했다. 일주문 격인 불이문을 지나면 오른쪽으로 묘적전이 마중한다. 고요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묘하게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묘적전이다.

묘적전과 범종각 중간에 자리한 비룡관음전 앞에는 바다로 내려가는 계단이 나 있다. 야외기도처인 연화대로 이어진 계단이다. 연화대는 바다 속에서 머리를 내민 거북이형상을 하고 있다. 연화대 주변에는 발가락바위, 발바닥바위, 달마바위, 여의주바위, 얼굴바위 등 이상하게 생긴 바위들이 곳곳에 널렸다.

17:00 옛 온기 그대로 남은 굴피집

양양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들를 곳이 있다. 버들계곡 굴피집이다. 양양에서 진부 방면 59번국도를 타고 어성전으로 가다 보면 우측에 버들계곡 입구가 나온다. 여기서부터 약 1km 정도 들어가면 보존상태가 굉장히 양호한 굴피집이 있다. 굴피집은 굴피나무, 상수리나무, 삼나무 따위의 두꺼운 나무껍질로 지붕을 덮은 집을 말한다.

강원 산간과 울릉도 등지에서 이 같은 양식의 집을 지어 살았다. 버들계곡의 굴피집은 50년대 후반 지은 것이다. 우리나라에 있는 굴피집 가운데 원형을 가장 잘 보존한 축에 든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이 살았다. 하지만 그 아래에 새 집을 지어 이사했다. 거의 매일처럼 주인이 들러 집을 다듬으며 온기를 불어넣기 때문에 여전히 생생하다. ㉞

여행 길라잡이

가는길 서울 → 6번국도 → 양평 → 44번국도 → 홍천 → 56번국도 → 구룡령.

참자리 구룡령을 넘어 56번국도를 따라 내려가다 보면 갈천리가 나온다. 이곳에 갈천해마리조트(033-673-7111)가 있다. 한국관광공사 우수 숙박업소 ‘굿스테이’로 지정된 곳이다. 2인~6인을 수용할 수 있는 방들이 여럿 있다. 미천골자연휴양림(033-673-1806)에도 ‘숲속의 집’을 비롯해 하늘야채(011-9278-5158), 불바라기(033-673-4589)를 비롯해 많은 펜션들이 있다.

문의 양양군청 문화관광포털(tour.yangyang.go.kr) 문화관광과(033-670-2721), 설악산국립공원(seorak.knps.or.kr 033-636-7700).

GREEN ENERGY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알고는 있지만 실천하기 쉽지 않은 일들이 있다. 에너지 절약 또한 유치원에서부터 끊임없이 배워왔지만 몸에 배인 습관인지라 바꾼다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 하루 동안 얼마나 전기를 사용하는지, 무엇이 전기세를 올리는 요인인지 등 간단한 원리를 안다면 불필요하게 새는 전기를 줄일 수 있다.

전기 플러그를 뽑으면 공돈이 생겨요



계산법을 알면 전기세가 보인다

평소 납입하던 전기세가 갑자기 뛰었다고 호들갑을 떨며 '전기 좀 절약해야겠네' 라고 생각은 하겠지만 그저 이번 달에는 더워서 에어컨을 많이 켜서 그런가보다 혹은 추워서 보일러를 너무 많이 돌렸나보다 하며 실제로 실천에 옮기는 사람은 많지 않다. 전기 절약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지만 누구나 할 수 있고 그 방법 또한 어렵지 않은 않다.

먼저 전기요금에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알고 넘어가자. 우리나라 주택용 전기세에는 누진세라는 아킬레스건이 있다. 누진세는 쉽게 말해 사용량이 많으면 요금을 더 내게 하고, 적으면 요금을 덜 내게 하는 제도로, 총 전력 사용량을 6등급으로 나누어 전력사용량에 따라 치등한 전기요금단가를 적용한다. 일반적으로 월 사용량 300kWh까지는 요금이 저렴하지만 그 이상을 초과하면 전기세는 큰 폭으로 높아진다. 전력량에 따라 1kWh 당 1~50kWh까지는 33원, 51~100kWh까지는 78.1원, 101~200kWh까지는 113.6원이 적용되지만, 그 이상부터는 적용되는 요금이 커진다. 200kWh가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100kWh 단위로 164.2원, 237원, 348.5원, 611.4원으로 적용되어 요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예를 들어 평소 월 200kWh를 사용해 전기요금을 20,300원 정도 내던 가정에서 사용량이 50% 정도 늘어나 300kWh를 사용했다면 전기요금은 39,780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 평균 300kWh를 사용했던 가정에서 30% 정도 더 사용해 390kWh가 되면, 요금은 7만 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높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 전력 사용량보다 많이 사용한 달이라면 다른 부분에서 전력 소비량을 줄여야 전기요금 폭탄을 피할 수 있다.



방법을 바꾸면 새는 전력을 막을 수 있다

전기요금을 아끼는 가장 쉬운 방법은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 하지만 집안을 둘러보자. 전기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몇 개나 될까. 생활 전반에 필요한 것이기에 어쩔 수 없으니 이왕이면 똑똑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냉장고나 김치냉장고처럼 하루 종일 전기를 사용하거나 전기밥솥이나 세탁기같이 사용시간이 긴 제품은 반드시 소비효율이 높은 제품으로 선택한다. 소비효율 1등급 제품은 3등급 제품보다 전기소모량을 30%가량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사용방법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다. 세탁기는 빨랫감이 많다고 전기 소모가 많은 것이 아니니 빨랫감을 모아서 사용하는 횟수를 줄이고, 냉장고의 음식물 용량은 60% 정도가 적당하며 앞에 보관목록을 붙여 문 여는 횟수를 줄인다. 에너지 소비량이 높은 전기밥솥 대신 압력밥솥을 사용하고, 순간적으로 열을 내서 가열하는 전기주전자나 토스터 대신 가스레인을 사용하면 전기요금은 눈에 띄게 줄어든다.

전기제품을 사용하지 않아도 에너지가 새는 경우도 있다. 바로 콘센트에 꽂아둔 채 전원을 끈 상태. '코드를 뽑아두면 전기가 소모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귀찮아 그냥 두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런 대기전력이 모이면 전체 소비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해 전기요금을 올리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에너지관리공단 자료를 참고하면 홈시어터 18.9W, DVD플레이어 12.2W, 오디오 8.9W, 컴퓨터 3.25W, 프린터 3.07W 등이 대기전력으로 사용된다고 한다. 이들이 모이면 전체 사용량이 늘어나고 누진세까지 적용받게 되면 불필요한 요금이 허비되는 것이다. 대기전력을 차단할 수 있는 멀티탭을 설치해 사용하면 매번 일일이 콘센트를 뽑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에너지 줄여 환경도 보호하고 경품까지 챙긴다

이렇게 전기를 절약하면 요금이 줄어드는 보상도 있지만 탄소포인트로 전환하면 쓸쓸한 경품까지 챙길 수 있다. 탄소포인트제는 가정, 상업시설,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지구 환경을 위협하는 온실가스 즉 이산화탄소를 줄이면 감축한 만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 전기는 물론 수도,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에너지 사용량을 과거 동월과 대비해 절약하면 이를 이산화탄소 감축량으로 환산해 포인트를 준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 전력소비량을 월 평균 35kWh 줄이면 전기요금으로 9,890원 정도를 아끼게 되고, 1kWh 당 이산화탄소 424g으로 환산되면 월 평균 14,840g의 이산화탄소를 줄인 결과로 탄소포인트(10g 당 1포인트)는 1,484점을 쌓을 수 있다. 이것을 다시 1포인트 당 3원의 인센티브로 적용받아 현금, 캐쉬백, 상품권 등으로 월 평균 4,452원을 되돌려 받게 되는 것. 연간으로 따지면 탄소포인트제 참여로 약 17만 원 정도(9,890원 + 4,452원) × 12개월을 아끼는 셈이다. 탄소포인트제의 인센티브는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www.cpoint.or.kr)나 지자체별 탄소포인트 관련 사이트를 참고한다. 전기절약, 조금의 귀차니즘을 버리면 에너지를 아껴 지구도 지키고, 용돈도 버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집안 곳곳에서 새고 있을 에너지 단속에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보자. ㉞



환경도 지키고 세금도 안 내는 녹색금융상품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것이다. 최근에 출시되고 있는 녹색 금융상품은 가입조건이 없어 고려해 볼만 하다. 녹색금융상품이란 자원 및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하는 상품이나 서비스 생산에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녹색예금과 녹색채권은 3년 이상 유지하면 1인당 2,0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녹색펀드는 역시 3년 이상 유지하면 1인당 3,00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며, 납입액의 10%,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 남녀 모두 60세 이상이라면 1인당 3,000만 원까지 생계형저축으로 비과세가 가능하고, 협동조합의 예탁금은 1인당 3,000만 원까지 농특세 1.4%만 부과되며, 역시 조합의 출자금은 1,000만 원까지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장기주택마련저축도 있다. 무주택세대주이거나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1주택 소유 세대주가 가입할 수 있으며, 이자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가 적용된다. 2009년 이전에 가입하고 총소득이 8,800만 원 이하라면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탈세? No! 합법적으로 세금 덜 내는 법

흔히 절세하면 돈이 많은 사람의 고민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유리지갑으로 불리며 소득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직장인에게 훨씬 더 필요한 것이 바로 세금 덜 내는 방법이다.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 하지만 안 그래도 적은 월급에서 세금까지 떼고 나면 더욱 얇아지는 봉투를 볼 때마다 은근히 화가 나게 마련이다. 거창한 절세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상생활 속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합법적으로 조금 덜 내는 방법도 있다.





보장정보보험은 납입액 전액 100만 원 한도, 개인연금보험은 납입액 전액 3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주택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납입액의 40%, 48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준다.

의료, 부양, 현금영수증은 돈이다

연말정산에 대비하여 각종 영수증은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좋다. 가장 먼저 현금으로 물건 값을 결제할 때 귀찮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받아 두면 좋다. 신용카드 사용분과 합산하여 연간 총 급여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20%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배우자나 자녀의 현금 사용분도 합산하여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잘 활용해야 하며, 현금영수증과 관련한 조치는 인터넷(www.taxesave.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다면 본인은 전액 공제가 가능하며, 의약품 구입 및 틀니나 라식수술 등도 공제가 가능하므로 의료행위와 관련된 영수증은 잘 챙겨두어야 한다. 자녀 교육과 관련하여 학원비 등의 영수증과 선의로 한 기부 영수증을 챙겨 두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직접 모시지 못하더라도 부모님께 매월 생활비를 송금하고 있다면 그 영수증을 첨부해 부양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부모님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려면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생활 속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고 관심을 기울이면, 우리 주머니에서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이 새나가지 않도록 막을 수 있다. 그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늘 팍팍한 월급쟁이의 알뜰한 살림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기대해 본다.



6월 1일, 재산세와 부동산세 낼 사람이 결정된다

세금제도를 정확히 알고 활용하는 것은 세금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그 대표적인 것이 매년 납부하는 자동차세의 절약방법이다. 자동차세는 통상 6월과 12월에 나누어서 내게 되는데 매년 1월 31일까지 1년 치를 선납하게 되면 10%가 할인된다. 여기에 서울시 민이라면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할 경우 5%를 추가 할인해 주기 때문에 최대 14.5%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터넷 E-Tax시스템에 접속해 본인 자동차 세금을 조회한 후에 바로 납부하거나 관할 구청 세무과에 연락해 선납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은 뒤 은행에 내면 된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가장 기본적인 절세방법은 최소 3년 이상 보유하는 것이다. 1가구 1주택이라면 3년 이상 보유 시 양도세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6월 1일로 이날을 기준으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1년 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6월 1일 전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부동산을 구입할 계획이라면 6월 1일 이후에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이 유리하다.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바뀌었기 때문에 주택 수리비 영수증을 챙겨두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 양도세를 줄일 수 있다. 2011년 1월부터는 1가구 3주택 이상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올해 안에 처분하는 것이 좋다.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새 차보다 임시번호판이 붙어 있는 중고차를 구입하면 차량가격이 낮게 적용되기 때문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절약할 수 있다. 또 자동차는 연식에 따라 시가표준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신차를 구입할 때는 해를 넘겨 연초에 구입하는 것이 취득세와 등록세를 절약할 수 있다.

생활 속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고 관심을 기울이면, 우리 주머니에서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이 새나가지 않도록 막을 수 있다. 그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늘 팍팍한 월급쟁이의 알뜰한 살림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기대해 본다. ㉞

절대 사소하지 않은 몸이 보내는 SOS

□ 가끔 어지럽고
머리가 많이 아픉니다

□ 심장이 엇박자로
뛰거나 찌릿찌릿합니다

□ 별 이유 없이
자꾸 살이 빠집니다

□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떤 병이든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시작하면 회복하기 쉽지만, 병이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는 치료도, 회복도 힘들다. 항상 균형을 이루며 순환하는 인간의 신체는 어느 한순간에 고장 나지 않는다. 알아채든 그렇지 않든, 큰 병으로 진행되기 전 미리 증상으로 경고를 보내기 마련이다. 사소한 증상이라며 무시하지 말고,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읽어보자.

심장이 엿박자로 뛰거나 찌릿찌릿합니다

심장마비는 별다른 증상 없이 갑자기 죽음을 맞게 되는 돌연사의 원인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심장마비에도 전조증상이 있는 경우가 많다. 독일 베를린 의과대학의 디르크 뵐러 박사가 미국심장학회 학술지 「순환」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급성심정지 환자 406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75%에서 쓰러지기 전에 여러 전조증상이 나타난 바 있다. 전조증상 중 가장 흔한 증상은 심장이 갑자기 엿박자로 뛰는 것 같은 부정맥이 발생하거나 심장 쪽에 찌릿찌릿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것이었다. 다른 전조 증상으로는 흉통, 호흡 곤란, 오심 혹은 구토, 현기증 등이 있었다. 이러한 심장마비의 전조증상을 경험하지 않은 환자는 4명 중 1명에 불과했다.

한편 가슴 가운데가 심하게 압박되면서 칼로 찌개는 듯한 통증을 경험했다면 심근경색증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 심근경색증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심장동맥 내부가 막혀 심장 근육의 조직이나 세포가 죽는 것으로, 흉통이 대표적인 전조증상이다. 운동할 때뿐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도 흉통이 심하다면 즉각 병원을 찾아야 한다. 특히 잠을 잘 때, 아침에 찬바람을 맞았을 때, 흥분할 때 흉통이 있는지를 살피도록 한다.



가끔 어지럽고 머리가 많이 아픕니다

가만히 있어도 어지럽고 머리에 벼락이 친 것처럼 극심한 두통을 느꼈다면, 뇌졸중의 전조증상을 겪은 것일 수 있다. 뇌졸중은 2006년 통계청이 발표한 사망원인 1위(단일질환 기준)로 발병 시 사망률이 높고, 후유증이 심하게 당사자는 물론 가족과 사회에 큰 부담을 주는 질병이다. 흔히 '중풍'으로 불리는 뇌졸중은 뇌로 들어가는 혈관이 터지거나(뇌출혈) 막히는(뇌경색) 질환을 말한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뇌출혈의 빈도가 더 높았으나 최근에는 뇌경색의 빈도가 더 높아지는 추세다.

어지럼증은 뇌졸중 환자의 22% 정도가 발병 전에 겪는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로 흔한 전조증상이다. 사물이 두 개로 보이거나 한쪽 눈이 흐릿한 것, 마비도 흔한 전조증상이다. 한쪽 팔다리만 힘이 없거나 저리기도 하다. 평소에는 괜찮다가 갑자기 한쪽 손, 발에 힘이 없고 저리거나 감각이 무뎈다. 한편 발음이 어눌해지기도 하고 갑자기 엉뚱한 소리를 하기도 한다. 이러한 증상들이 심하지 않을 경우 대부분의 사람은 기운이 없거나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겨버린다. 특히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저절로 호전되는 이른바 '일과성 허혈성 발작'을 보이는 환자들은 증상이 사라지면 더 이상 치료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생각한다. 그러나 이는 앞으로 재발 혹은 더 중한 뇌졸중을 보일 수 있다는 경고 신호다.

그런데 어지럼증이 뇌졸중의 가장 흔한 전조증상이라고 해서, 어지럼증을 너무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 몸이나 머리를 움직일 때만 어지럽다거나, 앉았다

가 일어설 때만 어지럽다면 귓속 평형기관에 문제인 경우가 많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어지러움 또한 뇌졸중과는 별 상관이 없으며, 신경성 두통이 대부분이다.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것 같습니다

대변의 색깔은 소화기의 건강을 말해주는 신호등이다. 특히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혈변은 소화기 질환의 전조증상으로 여기고 바로 병원을 찾아야 한다. 혈변의 양상은 다양하다. 식도나 위와 같은 소화관 위쪽 부위의 장출혈은 피가 대변과 충분히 섞이기 때문에 대변이 전체적으로 검붉은 편이다.

반면 직장, 항문 등 아래쪽 부위의 출혈은 대변의 겉에 빨간색의 피가 묻어 나온다. 예를 들어 타르처럼 검은 변은 식도와 위, 십이지장의 출혈일 가능성이 크다. 이곳에 소화성 궤양이나 염증, 암 등이 있다면 출혈이 생길 수 있다. 한편 검붉은 색은 위나 위와 가까운 대장 출혈인 경우가 많으며, 선홍색 피는 주로 치질이나 궤양성 대장염에 의한 직장과 대장 하부 출혈이 원인이다.

만일 어린이가 복통을 호소하면서 콧물 같은 점액질에 피가 섞인 변을 본다면 장 중첩증이나 급성 충수염일 가능성이 크므로 서둘러 진찰을 받아야 한다. 대변에 피와 점액질

이 섞여 고름 같은 설사를 한다면 대장이나 직장의 염증일 가능성이 크다. 한편, 위암은 혈변 등의 뚜렷한 전조증상이 없어 병을 더 키우기 쉬우므로 주의해야 한다. 위암의 전조증상은 상복부 불쾌감, 팽만감, 소화불량, 식욕 부진, 체중감소 등으로, 그 증상이 위염 등 다른 일반적인 위장 질환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위염이라고 생각해 위암을 내버려두면, 생존율에는 큰 차이가 날 수 있다. 궤양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않고 방치하면 갑자기 멍치에 통증이 오면서 쇼크 상태에 빠질 수 있다. 궤양이 심해져 구멍이 뚫리는 천공으로 진행된다면 응급수술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가벼운 소화불량증이라 자가 진단하는 것은 금물이다.

별 이유 없이 자주 살이 빠집니다

살이 자주 빠지는 것은 다양한 질환의 전조증상일 수 있다. 체중이 줄어드는데 갈증이 심해 물을 많이 먹으면 당뇨병을, 잘 먹어도 체중은 줄고 피로하며 더위를 많이 탄다면 갑상선 호르몬이 과잉 분비될 때 생기는 갑상선 기능항진증일 가능성이 크다. 기침이나 미열이 지속되면서 체중이 준다면 폐결핵, 늘 피곤하고 피부가 누렇게 변하면서 체중이 감소한다면 간질환, 호흡이 곤란하거나 몸이 부으면서 체중이 줄면 심장질환의 전조증상일 수 있다. 성욕이 감퇴하면서 몸의 털이 빠지거나 피부가 하얗게 변하고 체중이 감소한다면 뇌하수체 기능 저하증일 가능성이 크다. 한편, 중년 이상의 연령층에서 체중이 갑자기 줄면 각종 암의 초기 증상일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도록 한다. ⑩

나는 빵셔틀입니다

노비제도가 사라진 지 한 세기가 넘었지만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는 이상한 신분제도가 생겨나고 있다. 일명 빵셔틀이라고 하는 새로운 학교 폭력. 빈부와 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주인이 될 수 없는 일인데, 마치 종을 부리듯 약한 자를 힘으로 제압하여 내키는 대로 부리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더욱이 그런 행동이 왜 잘못됐는지 죄책감도 느끼지 못한다고 하니 놀랍고도 심각한 일이다.

일진에게 빵을 사다주는 빵돌이, 빵셔틀

“빨리 자고 빨리 일어나 아침밥을 많이 먹어 최대한 스테미너를 채워야 한다. 매점에 빨리 드나들 수 있도록 마이클조던 운동화를 신는다. 엄마 지갑에서 몰래 2만 원을 꺼내고 체육복을 두 벌 준비한 뒤 담배 다섯 갑을 사간다. 뒷골목에서 ‘일진’ 들을 만나 인간 샌드백이 되지 않도록 일부러 지각한다. ... 제발 평생 일요일이었으면.”

한 학생이 인터넷에 ‘빵셔틀 생활기’란 제목으로 올린 글이다. 빵셔틀이란 학교에서 힘센 학생들의 강요에 의해 빵이나 담배 등을 대신 사다 주는 행위나,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을 뜻하는 신조어이다. 이는 단순히 빵을 사 오는 개념이 아닌 일종의 학교 폭력이며, 심각한 사회 문제이기도 하다. 빵셔틀에서 ‘셔틀(Shuttle)’은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스타크래프트에서 병력 운송을 담당하는 가상의 종족인 프로토스의 유닛(부대)을 뜻한다. 다른 일진에게 빵을 뺏기면 ‘셔틀추락’, 심부름 속도가 빠르면 ‘속업셔틀’이라고 부른다. 심부름의 종류에 따라 ‘돈셔틀’, ‘버스셔틀’, ‘가방셔틀’이라고도 부르지만, 대개 ‘빵셔틀’이라고 부른다.

(재)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하 청재단)의 2009년 학교폭력실태조사를 살펴보면, 빵셔틀의 경우 55.1%가 학교폭력인지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 청소년들이 빵셔틀을 폭력이 아닌 놀이처럼 인식하고 있으며, 죄의식이나 비판의식을 갖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뿐만 아니라 일부 폭력 학생들은 자신이 부리는 ‘빵셔틀’ 학생끼리 강제로 싸움을 붙이고 이를 구경할 정도로 죄의식을 느끼지 못한다. 이렇듯 빵셔틀 문제는 학교폭력과 결부돼 상당히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다. 그럼에도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심각한 실상을 잘 모르고 있으며 학생들 사이에서는 이것이 이미 일상화 되었다.

그러나 가해학생들에겐 장난일지 몰라도 피해학생에겐 ‘죽고 싶을 만큼의 고통’을 남기는 것이 사실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을 두고 학교폭력이 점점 교묘해지고 구조화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많은 학생들이 학교폭력은 학교를 졸업한다고 해서 끝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대학생이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한 대학생은 지금도 사



람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는 일이 어렵다고 했다. 시간이 흐르고, 치유하려고 노력해도 그 그늘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을 만큼 학교 폭력은 우리 자녀들에게 깊은 상처와 문제를 남길 수 있다.

우리 아이도 혹시 뺑셔들이 아닐까

지금 초, 중, 고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지금같이 잔인하고 심각한 학교폭력의 양상을 겪은 세대가 아니다. 그래서 혹시 내 자녀에게 일어날 수 있는 학교폭력에 대해 그냥 아이들 간의 싸움이나 별일 아닌 것으로 쉽게 지나칠 수도 있다. 이유 없이, 하지만 갈수록 잔인하고 공포해지는 학교폭력에 대해 누구보다 가정 내에서 부모가 알고, 혹시라도 자녀에게 나타날 수 있는 징후와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처법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고 있는 아이들의 경우 가해학생들의 보복이 두려워 부모에게 이야기 하지 않고 친구에게 의논하거나 혼자서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대부분 아이가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는 사실을 모른 채 시간이 흘러, 피해기간이 길어지고 심한 폭력이 발생된 이후에 알려지곤 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자녀에 대한 주의와 관찰이 매우 중요하며 조그마한 징후라도 발견한다면 아이들과 대화로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자녀를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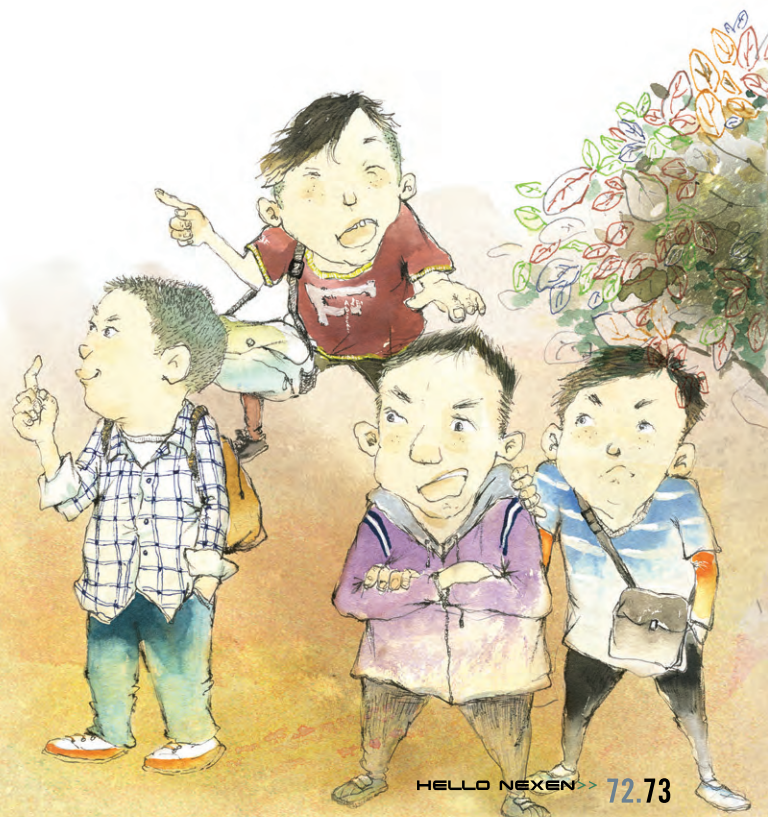
또한 피해를 줄이는 것만큼 가해상황을 알아내는 것도 중요하다. 만약 아이가 가족에게도 분노를 잘 참지 못하거나 공격적이어서 갈등을 겪는 경우, 아이들이 형제나 부모에게 짜증을 많이 낸다거나 과격한 행동을 보일 때에도 학교생활과 친구관계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피해학생의 경우 학교폭력이 장기화될수록 심리적 어려움이 극에 달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다. 가해학생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아이들이 더 좋지 않은 행동을 하고, 심한 폭력을 하다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분노감정을 조절할 수 없게 되고 공격성이 만성화되어 나중에 더 큰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사전에 미리 예방하고, 좀 더 빠른 시간에 학교폭력을 중지시키고, 아이들이 심리적인 안정을 찾아 즐겁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부모의 세밀한 관심과 관찰이 필요하다. ㉞

PLUS 부모가 알 수 있는 학교폭력 피해 징후

- ☐ 집에 돌아온 후 우울해하거나 힘이 없어 보인다.
- ☐ 자기 방에 틀어박혀 있는 시간이 많다.
- ☐ 평소보다 돈을 자주 달라고 요구하고 때로는 훔치기도 한다.
- ☐ 같이 어울리는 친구가 거의 없다.
- ☐ 두통, 복통 등을 자주 호소한다.
- ☐ 매사에 의욕이 없으며 초조한 기색을 보인다.
- ☐ 학교에 가기 싫어하고 전학, 자퇴하고 싶어 한다.
- ☐ 자주 물건을 잃어버린다.
- ☐ 친구의 심부름을 자주 한다.
- ☐ 학교 행사 등 학교와 관련된 일에 흥미 없어 한다.
- ☐ 작은 일에도 감쪽감쪽 놀란다.
- ☐ 잠을 잘 자지 못하거나 악몽을 자주 꾸다.
- ☐ 옷이 더럽혀져 있거나 찢겨져 있는 일이 종종 있다.
- ☐ 노트와 일기에 죽고 싶다는 등 낙서가 많이 발견된다.
- ☐ 학교 성적이 갑자기 떨어진다.
- ☐ 몸에 신체적인 외상이 있는데 이유를 잘 말하지 않는다.
- ☐ 전화를 받고 갑자기 외출하는 경우가 잦다.

- **5가지 이상일 때** 자녀의 학교생활에 어려움이 있는지 정확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파악한 후 필요 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다.
- **7가지 이상일 때** 학교폭력 피해지일 가능성이 높다. 자녀가 겪는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한 후 자녀의 피해상황을 파악해서 문제해결 방안을 자녀와 함께 논의한다.
- **10가지 이상일 때** 매우 위험한 학교폭력 피해자이다. 즉시,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바란다. 자녀는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되고 불안할 수 있으므로 학부모는 아이의 입장을 최대한 이해하고 위로, 지지, 보호해야 한다.

학교의 도움으로 문제해결이 완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전문 기관 등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재)정예단 학교폭력SOS지원단 상담전화 1588-9128 / 학교폭력 긴급전화 1588-7179 / 학교폭력 사이버상담 www.jikim.net, www.wangtta.com, www.wee.or.kr



좋은 친구들, 그리고 아름다운 시드니

여행을 좋아해 마음이 맞는 동료들과 여행계를 하고 있다. 덕분에 1년에 한 차례는 해외로 여행을 떠나지만 이렇게 멀리, 또 이렇게 오래, 여럿이 떠난 여행은 처음이라 아내도 출발 전부터 신이 난 눈치였다. 누구든 만나기만 하면 “남편이 벅센타이어에 다녀서 참 좋다”며 회사에 대한 칭찬을 늘어놓았다. 짐짓 티는 안 냈지만 나도 설렘다. 평소 신문이나 TV에서만 봐왔던 시드니의 오페라 하우스, 골드코스트 등을 직접 볼 기회라니 어찌 신이 나지 않을 수 있을까. 거기다 오랫동안 회사에서 동고동락한 동료들, 특히 입사동기들이 함께하는 여행이라 몹시 뜻깊었다.

총 9시간의 긴 비행이었지만 다들 여행마니아답게 기대와 설렘으로 피로를 떨쳐내고 호주의 천국이라고도 불리는 골드코스트로 먼저 향했다. 호주 최대 해양 테마공원인 씨월드와 전원농장인 파라다이스컨트리를 보기 위해서였다. 씨월드에서는 어마어마한 규모와 자연과 어우러져 하나 된 장관에 그저 “우와~”라는 감탄사만 연발했다. 또 파라다이스컨트리에서는 어마어마한 양의 숫자에 벌어진 입을 다물 수 없었다. 호주에는 약 1억 5,000만 마리의 양이 있다고 했다. 양태반크림, 어그부츠, 양털 이불, 양가죽 재킷 등의 양 관련 상품들까지 만나고 나니 목양업의 도시 호주에 대해 새삼 실감할 수 있었다. 밤에는 골드코스트의 골드라는 이름과 달리 백금색에 가까운 하얗게 빛나는 신비로운 모래사장에서 동료들과 서로의 속내를 터놓는 시간도 가질 수 있어 좋았다.

25주년 장기근속자 호주 여행기



다음 일정은 시드니다. 먼저 하버크루즈를 타고 시드니 항을 돌며 점심을 즐겼다. 배 위에서 오페라하우스와 하버브릿지, 달링하버를 직접 보니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멋지다”라는 말이 절로 났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해가 서서히 지자 점차 다른 시드니가 펼쳐진 것이다. 크루즈를 타고 보는 오페라하우스도 충분히 멋졌지만 가까이서 직접 보는, 노을 속의 오페라하우스는 장관이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멋졌다. 노을을 배경으로 아내와 동료들과 사진을 찍으며 나중에 꼭 한번 다시 오리라, 그땐 시드니와 양대 산맥이라 불리는 멜버른에도 가서 두 도시를 마음껏 즐겨보리라 다짐했다.

그렇게 6박 7일의 일정을 모두 소화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 정년을 앞두고 다녀온 이번 여행에 대해 생각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내정기가 좋지 않다고 하는데도 이런 여행을 보내준 회사에 그저 감사할 따름이었다. 회사가 잘 되는 것 같아 일원으로서 기분이 좋고, 또 25년간의 근속이 몹시 뿌듯했다.

끝으로 부부동반이었던 우리와 달리 인솔자로 함께한 노조간부 3명에게 미안하고 고맙다는 말을 전하며, 이번 여행을 주최하고 진행해준 회사, 그리고 노조에 감사를 표한다. ㉞

Sydney



마음을 타이어테크 천안점 • 비우면 고객이 다가옵니다

머리를 꺾고 첩첩산중으로 들어가 도를 닦는 것도 아닌데 이랬다 저랬다 번덕스런 사람을 대하면서 마음을 비우기란 말처럼 쉽지 않다. 그것도 흔히 더럽고 치사하다고 말하는 서비스업을 하려면 말이다. 그래서 타이어테크 천안점 윤중현 대표도 타이어업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자신의 성격이며 성질을 버렸다.

“제 손을 통해서 바꾸는 타이어에 대해 A/S는 절대 없다는 생각으로 작업하는데, 그러려면 고객에게 설명을 잘해줘야 해요. 이래서 이렇구나 하고 고객이 납득할 때까지 귀찮을 정도로 설명을 해주어야만 날 믿고 타이어를 바꾸거든요. 남편 대신 온 여성 고객의 경우 매장에서 설명하고 남편한테 전화해서 또 말하고 100번이라도 같은 설명을 해주죠.”

넥센타이어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 타이어의 기능이나 성능에 대해 누구보다 더 잘 안다고 자신하기에 당당하게 고객을 이해시킬 수 있는 것. 시원시원한 성격에 호탕한 웃음을 곁들인 윤 대표의 친절한 설명이라면 저절로 믿음이 생길 듯하다.

“고객은 최대한 싸게 구입하려고 하겠지만 전 타이어 성능이며 가격을 제대로 말해주고 생각했던 것과 차이가 있다면 그냥 가시라고 해요. 한번 바꾸면 3년 정도는 사용하는데 묵돈 들어 끼워놓고 타이어를 볼 때마다 미심쩍은 마음이 들면 안되잖아요.”

고객 입장에서는 물건을 파는 사람이 배짱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오히려 어깨를 펴고 자신있게 판매하는 윤 대표의 모습을 보고 이전에 왔던 사람들이 재방문하고 주변 사람을 소개시켜주는 경우가 더 많다. 제 값을 지불한 만큼 사후 관리는 물론이고 정비 등의 서비스로 되돌려 받으라고 덧붙인다.

거창하게 지역 매출 1위 같은 것을 바라진 않지만 스스로 만족할 정도의 매출이라면 충분하다는 윤중현 대표. 거품을 빼고 담백함만 담은 그의 밝은 소신이라면 덜어낸 만큼 더 큰 것이 채워지리라 기대해본다. ㉞

타이어테크 천안점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972 Tel 041-571-4767

변화의 핵심에 도전하라 신규 입사자 입문교육



지난 8월 16일부터 27일까지 양산 에덴밸리리조트에서 신규 입사자 입문교육이 시행되었다. 신규 입사자의 빠른 조직 적응을 위한 타이어 산업 및 당사 제도, 시스템 관련 지식은 물론, 넥센타이어 공통역량 강화 교육 및 타이어 제조현장 체험까지. 약 10일간의 교육은 회사에 대한 이해를 돕고, 비전을 공유하며, 애사심을 키우는 기회가 되었다. 특히 8월 18일에는 이현봉 부회장이 직접 '변화의 핵심에 도전하라'라는 주제로 특강에 나서 신규 입사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세계 1위를 향한 힘찬 비상 8월 우수제안 현장발표회



지난 9월 16일, 8월 우수제안 현장발표회가 양산 본사에서 진행됐다. 8월 우수제안 제출건수는 총 102건으로 지난 5월에 이어 최대 실적을 갱신했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우수제안자 발표 외에도 우수 분임조 활동 실적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이 있어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양창수 생산 본부장은 이날 발표회에서 "직원들의 회사에 대한 애정이 제안을 낳고 그 제안이 회사 발전에 큰 보탬이 된다"며 "앞으로도 제안활동이 왕

성하게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수제안자 품질검사팀 박창현 사우, 금형관리파트 이병윤 사우, 가류파트 강재환 사우, PCR파트 양규상 사우(2건), 정련파트 문형섭 사우
우수분임조 가늌쇠 분임조(최우수상), 힘모아 분임조(우수상), 샴터 분임조(장려상)

내비게이션 업그레이드 하세요 아이나비 무료 업그레이드 서비스



넥센타이어는 지난 7월 30일 국내 1위 내비게이션 업체 티크웨어(주)와 공동으로 내비게이션 무료 업그레이드 서비스에 나섰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고객들에게 한층 편리해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작된 이번 서비스는 타이어테크와 타이어앤피트 등 약 40여 개의 지정대리점에서 받을 수 있다. 또 아이나비 지도상에 넥센타이어 대리점 위치 정보를 등록해 보다 편하게 타이어 전문매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했다.

지혜로 하나 된 자리 2010 제2회 사내 분임조 경진대회



지난 9월 29일, 2010 제 2회 사내 분임조 개선사례 경진대회가 TPM 교육실에서 열렸다. 전사 제조·기술·물류의 TPM 및 품질향상의 자발적인 붐업

을 유도하고, 큰 성과를 거둔 분임조를 발굴·포상하며, 이 활동을 확장시켜 전사 원가절감 및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총 7개의 분임조 대표들이 나와 다양한 TPM 활동지식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다. 시상식에서는 재료파트 밀거름 분임조가 최우수상을, UHP파트 고목 분임조가 우수상을, 품질검사팀 밀물 분임조와 제품관리파트 야생마 분임조가 장려상을 받았으며 나머지 분임조에게도 노력상이 돌아갔다.

안전한 명절 되세요 추석 귀성길 타이어 무상점검



지난 9월 17~18일 이틀간 넥센타이어는 경부고속도로 추풍령휴게소 하행선과 영동고속도로 웅인휴게소에서 귀성차량을 대상으로 타이어 무상안전점검, 차량소독 등 고객 사은 캠페인을 실시했다. 넥센타이어의 A/S 전문인력과 2.5톤의 모바일 점검 차량이 투입된 이번 행사에서는 타이어 제조업체에 상관없이 타이어의 공기압 측정과 마모상태, 외관점검 등과 함께 각종 오일류 점검 및 보충 등 차량점검 서비스를 시행했으며 운행 시 필수적인 워셔액 보충을 비롯해 유리창 청소와 실내 청소까지 무상으로 제공해 운전자들의 귀경길을 도우며 호평을 받았다.

활발한 스포츠 마케팅 서킷을 질주하는 넥센타이어

넥센타이어가 2010년을 맞아 활발한 모터스포츠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 지난 7월 CJ 헬로넷 슈퍼레이스에 넥센N9000 클래스를 신설하며 공식후원에 나선 넥센타이어는 지난 9월 12일 태백에서 펼



쳐진 2회 경기에서도 안정된 주행능력과 월등한 품질력을 선보이며 선수들의 호평을 받았다. 그 밖에도 2008년부터 유럽의 프로 드리프트 시리즈를 꾸준히 후원해오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미국 포물러D 드리프트 대회도 팀 스폰서링 형태로 후원하기 시작했다. 특히 아일랜드 출신의 제임스 딘은 2008년 아일랜드 챔피언십 1위에 이어 올해도 3라운드까지 종합 1위를 달리고 있어 넥센타이어의 기술력을 세계에 알리고 있다.

야구의 열기는 식지 않았다 사회인 야구단과 함께하자



넥센타이어가 사회인 야구단을 위한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10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진행되는 대형 이벤트다.

온라인에서는 홈페이지에 사회인 야구단 소개 사진을 올리거나 댓글을 달면 경품을 지급하는 이벤트가 진행되며, 오프라인에서는 전국 약 140여 개 지정대리점에 사회인 야구단 선수가 유니폼을 착용하고 방문할 시, 할인을 제공하는 행사가 진행된다. 오프라인 행사의 경우 개인은 10%, 단체는 15%(10분 이상)의 할인이 제공되며 PCR과 SUV에 한해 진행된다.

독자 후기

여름을 맞아 안전한 휴가를 위한 자동차 셀프 점검법이라는 기사를 읽고 자동차를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좋았습니다. 넥센타이어라는 회사가 프로야구 덕분에 일반인들에게 더 많이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던 것처럼,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넥센 히어로즈에게 꾸준한 힘을 실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넥센 파이팅!

| 김성철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헬로우 넥센〉을 꾸준히 보고 있는 독자입니다. 특히 재테크 기법 등의 정보는 어려운 재테크에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보고 있는 기사예요. 앞으로도 꼭 연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헬로우 넥센〉은 보면 볼수록 생활의 활력소가 되는 사보 같아요. 읽는 순간순간 삶의 행복을 느끼고, 그 행복으로 조금씩 앞으로 나갈 수 있게 해줘서 너무 행복하답니다. | 박상희 경기 수원시 고등동

평소 건강에 관심이 많아 '여름보약 멀리서 찾지 마세요'라는 기사가 크게 와 닿았습니다. 유난히 더웠던 여름나기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헬로우 넥센〉은 다양한 읽을거리가 많다는 것이 장점인 사보라고 생각합니다. 발로 뛴 유익한 기사들 덕에 읽는 내내 참으로 재미났습니다. 앞으로 더 알찬 가을호, 겨울호를 기대해 봅니다. | 김금로 서울시 관악구 신림1동

:: 담당자 - 인사팀 박수현 055-370-5283, soo0526@nexentire.co.kr

:: 여름호 독자 후기 및 퀴즈에 당첨되신 모든 분들께는 넥센타이어 할인권을 보내드립니다.

:: 가을호 독자 후기 및 퀴즈 당첨자에게는 넥센 히어로즈 후드티와 모자, 상품권, 타이어 할인권 등을 보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헬로우 넥센〉 구독 신청 넥센타이어 홈페이지(www.nexentire.com)에서 Enjoy Nexen → 헬로우 넥센 → 헬로우 넥센 보기 하단에 사보 신청 메뉴가 있습니다.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세요.

독자 후기

〈헬로우 넥센〉은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만들어지는 넥센 타이어의 사보입니다. 좋았던 기사, 아쉬웠던 기사, 바라는 점 등 독자 후기를 엽서에 적어 보내주세요.

〈헬로우 넥센〉독자엽서에 수취인 후납 부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더욱 간편하게 의견을 보내주세요. 독자분들의 한 마디 한 마디를 소중히 여기는 〈헬로우 넥센〉이 되겠습니다.

퀴즈 당첨자

김용석 전북 전주시 삼천동

유재범 서울시 관악구 행운동

장지훈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강유리 광주시 남구 진월동

서명곡 부산시 남구 대연3동

여선화 경남 양산시 물금읍

오수영 경기 수원시 영통동

차강문 부산시 사하구 과정동

안상환 부산시 사상구 덕포1동

유미나 서울시 중랑구 상봉동

〈지나호 독자 퀴즈 정답〉



9	8	4
6	1	7
5	2	3

Quiz 사진을 완성해 주세요

새단장을 마친 넥센타이어 홈페이지 메인 화면입니다. 서로 뒤바뀐 조각의 위치를 바로 잡아 독자엽서에 순서대로 번호를 표시해 보내주세요. 완성 해주신 분께는 추첨을 통해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독자엽서에 정답을 체크하여 11월 31일까지 우체통에 넣어주세요.

하늘을 달리는 타이어

타이어가 땅이 아닌 하늘을 달립니다.
지문이 다 닳도록 열심히 일한 타이어에게
휴식 같은 제2의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줄을 서서 놀아 달라 조르는 아이들의 사랑에
까무잡잡한 얼굴에 윤기가 반짝반짝.
아이들을 포근하게 안고 하늘을 달리는 그네가 되었습니다.
“아이야, 꼭 잡으렴. 자동차보다 빠르게 하늘을 달려보자꾸나.”



일본능률협회 컨설팅 선정
2010 글로벌 고객만족도
타이어부문 1위 넥센타이어

By Bob Ulrich

What recession? What tariff? Nothing seems to be able to stop the demand for high and ultra-high performance tires.

Replacement passenger tire shipments in the United States were down 6.6% in 2009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In contrast, high performance (H-rated,

Performance market share by brand

(UHP = 22.6 million units)

Brand	UHP
Goodyear	15.5%
Michelin	14.0%
Bridgestone	9.5%
Yokohama	4.5%
Kumho	3.5%
BFGoodrich	5.5%
Hankook	4.0%
Toyo	4.5%
Falken	8.0%
Firestone	3.5%
Dunlop	5.0%
Continental	4.0%
Pirelli	4.0%
General	1.5%
Nexen	5.0%
Sumitomo	1.5%
Nitto	1.0%
Wanli	1.5%
Fuzion	1.0%
Others	4.0%

Nexen 5.0%

Because numbers are rounded to the nearest half-percent, the total may not equal 100%. Brands must have at least 1% of the total HP or UHP market in shipment numbers to be listed at 1%.

Modern Tire Dealer

놀라운 5%! 국내 타이어 중에선 오직 넥센타이어 뿐!

가장 높은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UHP타이어 점유율에서
넥센타이어, 한국을 넘는 '글로벌 파워 브랜드' 입증

미국 최고 권위의 타이어잡지 MTD(Modern Tire Dealer) 조사결과
넥센타이어의 UHP타이어 (초고성능 타이어) 미국내 점유율이

주요 경쟁업체를 앞서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직 품질과 기술력으로 사랑 받는 넥센타이어!

한국을 넘고 세계를 향해 달립니다

70-series or lower) tire shipments were up 6.4%, from 27.8 million units in 2008 to 29.6 million.

The growth in UHP tire shipments was even more dramatic. They increased 14%, from 19.8 million units to 22.6 million.

In the last five years, domestic UHP shipments have grown 75%.

"UHP is the battlefield today," says Rick Brennan, vice president of marketing for Kumho Tire U.S.A. Inc. "It's where the profit is."

Large rim diameters

UHP tires, loosely defined as V-rated and higher, are often associated with large rim diameters. Entering 2009, there were 324 passenger tire sizes; 55% of them were at least 17 inches in diameter, according to the Tire & Rim Association.

U.S. imports of those sizes were down significantly last year. But comparable Chinese passenger tire imports, despite the additional 35% tariff imposed on them by President Barack Obama on Sept. 26, were up close to 75%.

Not everyone was able to overcome

the tariff and take advantage of the tariff, however. After announcing its new Diamondback performance line, manufactured by Triax Ltd. in Shandong, China, last August, Zisser Tire Co. pulled the plug "due to the tariff."

High/ultra-high performance market share based on 52.2



Goodyear 20.5%
Bridgestone 13.5%

MTD February 2010



N9000

스트리트레이서를 위한 타이어,
온오프로 느끼고 퍼포먼스를 즐겨라!

N8000

스포츠 세단에 날개를 달다!
품위있는 질주본능

N6000

유러피안스타일의 젊은 감각,
스포츠한 드라이빙에 빠지다!

NEXEN

넥센타이어

www.nexentire.com